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공기업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재윤

공기업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병 조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정 재 윤

정재윤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정 광 호 (인)

부위원장 _____ 최 태 현 (인)

위 원 _____ 김 병 조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은 점점 높아지고 이에 따라 공기업의 '청렴'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 등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 기업인 공기업으로서 '청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된다. 공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즉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공성과 수익성은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저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렴'이라는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반석이 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공기업이라서가 아닌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당연한 선택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기업 중 시장형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공기업 2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측정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시하는 청렴도지표를 설정하였다.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세분화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재무적 성과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지표로 나누었는데, 재무적 성과지표로는 수익성지표인 매출액세전이익률, 안정성지표인 이자보상배율 그리고 활동성지표로는 총자산회전율을 설정하였다. 비재무적 성과지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매출액, 평균연봉, 공기업유형을 설정하였다. 조절변수로는 여성직원비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B2C/B2B)를 설정하여 어떠한 조건에서 상관관계가 변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재무적 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 내부청렴도는 고객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내부 구성원들의 ‘청렴’한 마음가짐과 투명한 업무처리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외부고객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 추정된다

세 번째, 여성직원비율이 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과간 상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직원비율이 높을수록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외부고객은 신속하고 융통성있는 일처리를 요구할 것이고 부패에 덜 관여되는 여성직원의 특성상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추구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과간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B2C기업에 가까울수록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영위해야하고 이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긍정적인 효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높은 청렴도수준이 높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담보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는데는 실패했지만 최소한 청렴도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의미한 관계는 아님을 최소한 입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청렴도, 윤리경영, 경영성과, 공기업

학 번 : 2021-24184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윤리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6
2. 윤리경영의 기본이론	9
3. 청렴, 부패 그리고 윤리경영	12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16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20
1. 윤리경영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1
2. 윤리경영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3
3. 윤리경영과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5
4. 기존 연구의 한계	26
제 3 장 연구 방법	27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27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28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28
2. 통제변수	33
3. 조절변수	34
제 3 절 연구가설	37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0
1. 자료의 수집	40
2. 자료분석 기법	40

제 4 장 연구의 분석결과	41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	41
1. 독립변수	41
2. 종속변수	41
3. 통제변수	42
4. 조절변수	43
제 2 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43
1. 다중공선성 분석	43
2. 총괄분석 결과	48
제 3 절 분석결과 해석	93
1. 외부청렴도 수준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95
2. 내부청렴도 수준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96
2. 여성직원비율,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97
제 5 장 결론	9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99
제 2 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103
제 3 절 연구의 한계	104
참고문헌	109

표 목차

[표1] 2020년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3
[표2] 윤리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윤리철학과 판단기준 · 10	
[표3] 공공기관 유형분류	19
[표4] 공공기관 지정현황	20
[표5]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30
[표6]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31
[표7] 변수의 조작적 정의(독립변수, 종속변수)	35
[표8] 변수의 조작적 정의(통제변수)	35
[표9] 변수의 조작적 정의(조절변수)	36
[표10]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41
[표1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42
[표12]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42
[표13] 조절변수 기술통계량	43
[표14] 피어슨 상관계수	45
[표15] 분산팽창지수(VIF)와 공차한계	46~47
[표16] 청렴도수준, 경영성과 및 조절효과 분석결과	48
[표17] 매출액세전이익률 분석결과	49
[표18] 이자보상배율 분석결과	50
[표19] 총자산회전율 분석결과	51
[표20] 고객만족도 분석결과	53
[표21]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 55	
[표22]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56
[표23]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58
[표24]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58
[표25]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 61	
[표26]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63
[표27]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64
[표28]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66
[표29]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 68	

[표30]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69
[표31]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71
[표32]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73
[표33]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74
[표34]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76
[표35]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77
[표36]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79
[표37]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1
[표38]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2
[표39]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4
[표40]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5
[표41]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7
[표42]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89
[표43]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90
[표44]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 조절효과	92
[표45]	가설채택여부	93
[표46]	가설채택여부(조절효과, 여성직원비율)	94
[표47]	가설채택여부(조절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	95
[표48]	가설채택여부	99
[표49]	가설채택여부(조절효과, 여성직원비율)	100
[표50]	가설채택여부(조절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	100

그림 목차

[그림1]	우리나라 CPI 변동추이	3
[그림2]	종합청렴도 점수추이	16
[그림3]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점수비교	17
[그림4]	내·외부청렴도 부패경험률	17
[그림5]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델	18
[그림6]	연구분석틀	27
[그림7]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청렴도 측정모델	29
[그림8]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3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경쟁력의 운명은 사회구성원들의 능력과 청렴이 좌우한다. 그렇기에 청렴은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 여겨져야 하고, 그 누구보다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은 국가의 근간을 담당하기에 그만큼 책임이 더욱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가경영에 관한 철학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청렴도가 높을수록 공동체 내 법적·사회적 질서가 바로 잡혀있고, 흘린 땀과 노력에 비례해서 공정한 결과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경영의 섭리가 이러함에도 우리사회는 아직도 청렴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CPI)는 180개국 중 33위로 세계 10위에 빛나는 경제대국의 지위를 고려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또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OECD 국가만 고려하면 37개국 중 23위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에 이어서 33위로 개선되는 중이라는 점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산출한다.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데는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법무부장관 자녀 입학비리 사건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부패와 고질적인 공직자 비리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구조적 부정부패 고리가 만연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한번 터지면 고구마 줄기 위듯이 많은 관련자들이 드러나며 공직자, 재계인사, 정치인 등 그들만의 검은 유착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사회적인 병폐로 자리잡게 된 계기는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겪으며 다른 나라와는 차별되는 정치적 독재에 의한

근대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빠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언정 사회 전반에 퍼진 사적 인맥의 영향력과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는 규범의 준수와 합리적인 협력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정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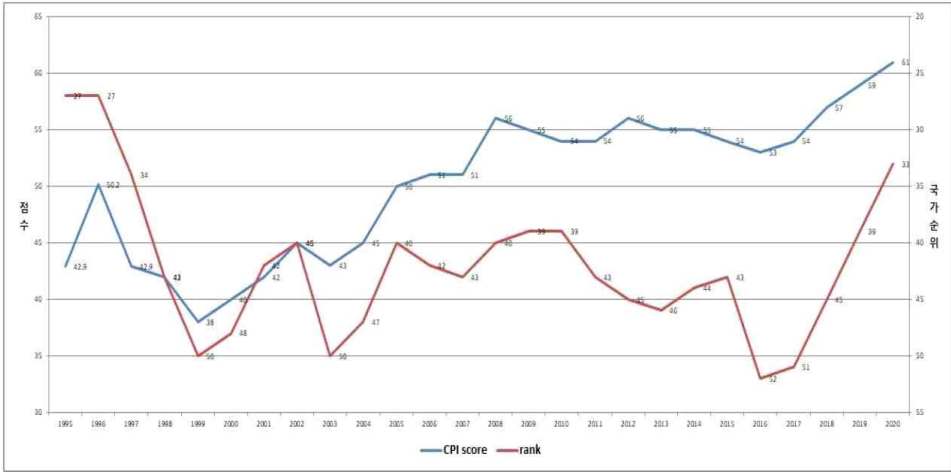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청렴한 대한민국의 구현은 이번 정권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년 4월경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의 청렴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한 대한민국 조성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완전무결한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없는 사회, 청렴한 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이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한 행위를 해야한다. 하지만 인사비리, 뇌물수수 등 본인인 국민을 위한 직무수행이 아닌 대리인 자신을 위한 부정한 사적이익의 추구행위는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인인 국민의 효용은 침해되고 있다. 청렴과 멀어질수록, 부패가 만연해질수록 신뢰를 잃고 관련된 거래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그림 1>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표 1> 2020년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명	2020 CPI	전체 순위	OECD 순위	국가명	2020 CPI
1	1	덴마크	88	25	20	미국	67
		뉴질랜드	88			칠레	67
3	3	핀란드	85	32	22	스페인	67
		스웨덴	85	33	23	대한민국	61
		스위스	85			포르투갈	61
7	6	노르웨이	84	35	25	리투아니아	60
8	7	네덜란드	82			슬로베니아	60
9	8	독일	80			42	28
		룩셈부르크	80	라트비아	57		
11	10	호주	77	45	29	폴란드	56
		캐나다	77	49	30	체코	54
		영국	77	52	31	이탈리아	53
15	13	오스트리아	76	59	32	그리스	50
		벨기에	76	60	33	슬로바키아	49
19	17	일본	74	69	34	헝가리	44
20	18	아일랜드	72	86	35	터미	40
23	19	프랑스		92	36	콜롬비아	39
※ 출처 : 한국투명성기구				124	37	멕시코	31

하지만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변화와 조직 문화 혁신 등 대내·외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청렴을 수행하는 주체인 조직구성원에게도 사명감과 함께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 즉 기관의 청렴도 향상이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듣고 보기 좋다고만 해서 비용과 번거로움이 소요되는 청렴을 강요한다면 이는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청렴수준이 높은 기관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재무적 성과도 높을 것인가? 라는 호기심이 생겼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공공기관별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지표인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으로 구분된다. 이 지표들은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평가하는 계량적 수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기업의 청렴도 지표로 국민권익위에서 공시하는 청렴도지표를 활용하여 기업성과 공공성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가 지속가능한 경영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수익성을 확인할 수 있고, 비재무적 성과는 민간기업과 차별되는 공기업의 특성인 공공성에 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청렴수준과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하나인 조직 청렴도에 대한 종합적 경영성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공헌할 것이라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으로 상대적으로 준 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본 연구에 타당한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연구기간은 국민권익위에서 공기업 종합청렴도를 발표한 시점인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도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적 연구에서는 윤리경영, 청렴 및 부패에 대한 개념과 의미, 국·내외 부패근절을 위한 각종 노력 및 표준화에 대해서 학자들과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 단행본 등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를 수집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와 DART(기업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 지표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을 확인한다.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 지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공기업 대국민 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를 수집하며 추가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습득한다. 통계시스템은 STATA를 이용하여 분석하며 청렴도와 기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윤리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윤리(倫理, etic)란 ‘倫(인륜), 理(다스림)’로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고, 도덕적 가치를 가리키며, 일반적 내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천되고 있는 개인행동에 관한 일조의 기준 내지 표준(standard)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집단이나 조직체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제반의 규칙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행위기준이 없다면 자유기업제도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기업행동은 바로 자의적인 행동이 되기 쉽고 그것은 책임 내지 의무를 지지 않는 기업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수, 2011).

윤리는 개인이나 한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말한다. 규범적인 윤리학은 어떤 기준이 올바르며 최선의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학문이다. 기업 윤리란 일반적인 윤리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특정 분야의 윤리에 대해 논한다. 기업 윤리는 기업 정책과 조직, 행동 등에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Velasquez, Manuel G, 2001).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다. 또한 윤리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과 가치를 나누는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김택, 2010). 윤리경영의 본질은 혼자가 아닌 모두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다.

소극적 의미의 기업윤리는 기업의 태도,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잣대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동태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기업윤리는 선과 악, 그리고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기업행동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그동안 합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허용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공병호·최승노, 1996).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면 기업윤리가 필요하다.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신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뢰가 깨지면 신용거래가 성립될 수 없고, 신용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거래 쌍방이 일정한 수준의 윤리성을 지켜야 한다.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호간 믿을 수 없고, 거래가 발달될 수 없으며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기업에 손해가 된다. 그 손실의 형태는 대외적 손실과 대내적 손실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신용도와 위상이 떨어져서 그 결과 매출이 감소하여 결국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대내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터’라고 생각하고 있던 종업원의 긍지와 자부심에 영향을 주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진다. 반대로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고경영자가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면 이것은 종업원에게 자랑스러운 회사에 근무하는 긍지를 주게 된다. 그러한 태도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면 종업원의 작업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이종영, 2005).

2011년 이후는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및 범세계윤리 가치의 도입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신인도 향상과 지구촌의 청렴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OECD는 ‘공직사회 윤리 인프라’(Ethic Infrastructure) 구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선진국들은 공정과 정직을 필두로 하는 윤리를 국가기반시설로 보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윤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평가 척도로 볼 것이며 앞으로 전개되는 미래의 기업경영방향은 윤리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책임, 사회공헌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김성수, 2011).

윤리경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박재린, 2003).

기업윤리는 비윤리적인 방법에 의한 이윤추구행위를 적절히 규제시켜준다. 또한 기업의 신뢰성과 성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해관계자 집단의 압력 및 여론으로부터의 지탄을 예방한다. 그리고 기업윤리는 기업자체의 존립과 발전의 필요조건이 되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유지되는 기업의 종업원은 자부심과 귀속의식이 강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윤리는 기업이 국제적 윤리라운드 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신뢰수준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준다.

윤리경영은 이해관계자 집단에 만족과 신뢰를 주기 위하여 공통의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평판이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건희, 2003, 이호갑 외, 2011).

첫째, 윤리경영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기업의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이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데 기여한다. 초우량기업이라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다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두 가지의 순환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윤리경영은 “기업이미지의 제고 → 고객의 충성도 향상 → 판매증가”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창출 한다는 순환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윤리경영은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 제고 → 작업능률(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는 순환과정이다.

셋째, 윤리경영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스탠다드의 잣대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다. OECD, UN 등의 국제기구는 반부패 및 윤리경영제도의 강화를 요구하며, 이를 준수한 기업의 제품만이 국제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은 시장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윤리를 무시하거나 윤리경영이 국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은 세계시장의 소비자단체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불법과 편법, 불공정 경영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쟁이 심화될수록 윤리경영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이는 기업의 생존여부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성의 질까지도 요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부응하여 기업의 생존전략과 차원을 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 윤리경영의 기본이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 행위가 왜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이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이론들이 윤리경영을 뒷받침해주는 주요 이론들이다(이종영, 2005).

먼저 의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빛은 마땅히 갚아야 하고, 어린 아이는 보호해 주어야 하고, 거짓말은 안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은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론이다.

둘째, 공리론은 어떤 행동의 결과가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한의 선을 낳는다면 윤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선은 어떤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순혜익을 말한다. 어떤 결정이 비용보다 더 많은 혜익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결정은 윤리적이라고 보고 따라서 그러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예컨대 뇌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만, 그 결과 이익을 많이 올려서 종업원과 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으면 뇌물을 주는 것은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공리론의 견해이다.

셋째, 상대주의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윤리성을 판정할 보편적 표준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같은 행위라도 한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이라고 인정되어도 다른 사회에서는 별문제 없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사회가 옳다고 믿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는 것이 상대주의론이다.

넷째, 관리적 이기주의론은 기업관리자가 관리자 자신이나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도록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대리인으로서의 경영자는 흔히 최소한으로 법규는 지키고, 그 이상은 순전히 기업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면 된다는 원칙을 이용한다.

다섯째, 정의론은 기업활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정의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정의는 다른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혜택은 물론이고 고통도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잘못된 자에게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표 2] 윤리적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윤리철학과 판단기준

구분	종류	윤리적 기준
의무론	공정성이론	공정성(분배적, 절차적, 처벌적)
	권리이론	개인의 권리 보호/보장
	사회적 계약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 준수 여부
목적론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 극대화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상대주의	가치 상대주의	법률적 합법성, 전통 문화적 특수성, 사회 전반적 가치의식

자료 : 유성은, 2007

선의경영이론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재무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 이론 중 하나이다. 윤리 수준이 높고 정의로운 기업이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어 매출액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의 의지와 사기를 북돋아 생산성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재무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이다(손수훈 2006; 오근혜 외 2012; 양형모, 윤태화, 2015; 강철희 외 2016; Waddock & Graves, 1997). Ullmann(1985)와 Berman et al.(1999)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재무성과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재무성과의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학자들도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사의 평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 경쟁우위를 갖게함을 논의한다(박헌준, 이종건, 2002; 최운열 외, 2007).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무상태가 불안정하게되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Aupperle et al., 1985; Bartlett & Preston, 2000). 여유자원이론은 기업의 사회공헌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와 반대되는 방향에서의 논의이다. 이 이론은 기업의 재무성과가 기업사회공헌 활동에 영향에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여유자원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재무성과가 기업이 여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러한 조건이 기업들이 사회공헌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한다(박헌준 외, 2002; Seifert, Morris & Bartkus, 2004). 즉, 기업의 사회공헌이 기업의 재무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성과가 우선 보장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개선되는 양상이 있다는 것이다(Pava & Kraus, 1996; Stanwick, 1998). 이에 대하여 강철희 외(2007) 는 기본적으로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더 많은 여유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여유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사회공헌을 포함하여 사회 책임을 위한 노력을 행하는 경향이 보다 크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성 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 이론에서는 윤리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수익이 더 높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회적 책임투자(SRI)는 투자평가 요소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 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여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을 뜻한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와 유엔 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가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한 6가지 기준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했다. PRI는 유엔이 정한 사회적 책임 투자(SRI)의 금융원칙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투자 및 투명한 투자용자활동을 위한 원칙들이다(PRI, 2012). PRI에 참가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에 투자자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투자자의 수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문제(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를 운용 포트폴리오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사회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지구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우선주의 행동들을 감시 하고, 지속가능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책임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이강호, 2012).

3. 청렴, 부패 그리고 윤리경영

윤리경영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명경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투명경영은 크게 4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임태순, 2011).

첫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Good Company), 둘째, 친환경기업(Green Company), 셋째, 청렴한 기업(Clean Company), 넷째, 열린 경영의 기업, 신뢰의 기업(Right Company)이다. 특히, 청렴한 기업은 부패방지과 관련된 윤리경영의 하나로 국제적 윤리경영 기준으로 통용된다.

기업 윤리와 관련된 국제적 동향 중 다양한 국제기관이 존재하는데,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정치 경제 리스크 컨설턴시(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ancy, PERC),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 등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형덕, 2016).

국제표준화기구는 기업의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한 표준화된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6년에는 부패 방지 국제표준 규격 ISO 37001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발생가능한 부패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부패에 대한 정의를 하고 부패리스크의 식별, 우선순위를 통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적·비재무적 통제, 실사, 내부제보 등이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공기업 및 대기업을 통해 부패방지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20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61점으로 세계 180개국 중 33위이며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으나 OECD 회원국 36개국 중 26위로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부패척결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먼저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방지제도의 입법 추진 및 청탁금지법의 규범력 강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보완 등으로 부패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경영개발원은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살펴보면 부정부패가 적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기업효율성 평가항목 중 기업윤리수준의 검증 척도로 삼고 있는 '경영관행' 평가에서 매년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는 1976년에 설립되어 각국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위험을 분석해 주는 기관으로 외국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정치인, 관료, 재계 인사와 접촉하면서 일상 속에서 겪는 부패 정도를 평가한다. 2013년 이 기관은 아시아 선진국 중 한국이 최악의 부패국가라고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에서는 부패의 뿌리가 정치·경제 피라미드의 최상층까지 뻗어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에 둔감하며 글로벌 사회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들 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혀 대한민국을 국제적 부패국가로 낙인 시켰다.

부패 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 관행을 퇴치할 국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다자간 협상이다. OECD는 1999년에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OECD 뇌물방지협약"을 마련하여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계약을 달성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위와 관련된 국제적 기관들은 모두 기업들의 윤리경영과 관계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윤리경영 내용 중에서도 부패방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가 부패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렴이란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강조되어 오던 가치이다. 조선시대 청백리와 같이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공익적이고 대승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었다. 이러한 전통은 청렴이란 가치로 계승되어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렴의 개념과 관련하여 van Blijswijk et al.(2004: 719)는 ‘법과 원칙, 대중의 의향과 지단의 이익에 일치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직의무에 대한 개인적 지지’라고 정의한다. 또한 이종수 외(2008)는 청렴을 ‘공직에 대한 몰입 상태로서 공직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헌신적 실천’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러한 청렴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부패의 대응개념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청렴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원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온정 연고주의를 배척한 공정한 인사업무, 공익을 추구하여 국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패(Corruption)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부패에 대한 인식은 다르다. 과거에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행위들도 시민들의 교육수준,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부패로 인식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공서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소위 급행세라고 말하는 불리는 돈을 주면 해결되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현재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Boylan & Long, 2003; OECD, 2003). Shelifer & Vishny(1993)는 정부부패를 ‘정부관리가 사익을 위해 정부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정부 및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와 관련된 법령도 이러한 부패개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로서의 부패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고객사이의 병리적 관계 또는 상호작용까지도 부패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즉, 개인중심의 부패와 관계중심의 부패를 모두 포괄하며 부패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의 원인은 부패의 유형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접근은 크게 개인주의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환경적 접근으로 분류된다(이정주, 2014). 첫째, 개인적 접근방법은 부패행위는 결국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이해타산적인 판단작용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범죄행위는 범죄행위를 통해 얻게되는 이익과 범죄행위로 잃게 되는 손실에 대한 행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정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제도적 접근방법은 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사회구조에서 찾는 관점이다. 사회의 기저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특정제도, 규제, 관습은 그 구성원의 일탈을 유발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고주의, 온정주의, 답례관행 등 전통적으로 당연시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문화적 전통과 관습 등이 부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적 접근방법은 가장 거시적인 시각에서 부패를 바라보고 있다. 곽현근(2010)은 부패발생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은 부패행위가 공무원 개인이나 법·제도상의 결함에서 발생되기 보다는 뇌물수수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시민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외부환경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의 부산물, 즉 사회적 불안정, 한국인의 의리의식, 행정문화, 과도한 경쟁 등 포괄적인 범위까지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청렴성과 부패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김상미(2006)는 공적 청렴성을 ‘대중과 국가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따르는 행동의

질’이라 정의하며 뇌물, 연고주의, 이해충돌, 자원남용 등의 부패행위는 청렴성 위반에 포함되므로 부패와 청렴성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반면 곽형석(2008)은 청렴성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 이외에 정직성,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정의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주(2016)는 반부패(anti-corruption) 개념과 청렴(integrity)과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반부패는 주로 공직가치 중 합법성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적이면서 사후통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청렴은 반부패 의미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긍정적 가치로서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미래 지향적이며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렴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 여러 주체들이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좋은 정부를 만들어가려는 의미가 강해 정책 순응이 높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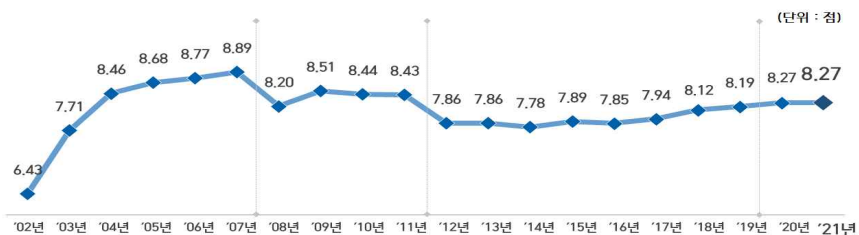
4.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반부패 정책방향이 주로 적발·처벌 등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02년 최초 측정 시에는 대민, 대기관 대상의 외부청렴도만 측정하다가 두 차례의 모형 개편을 통해 현재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 측정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상기관 또한 2002년 71개였는데 비해 2021년에는 592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21년 12월에 발표한 59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8.54점으로 전년 대비 0.01점 상승하였다. [그림1]과 같이 20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림 2]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02~’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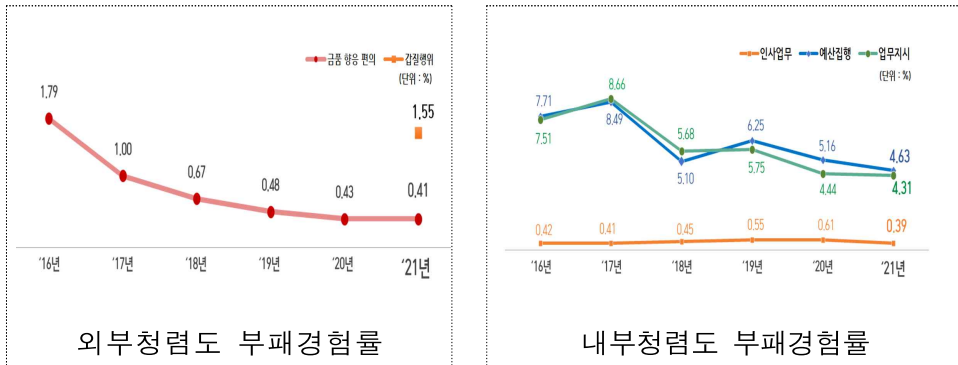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그림 3] 종합청렴도 및 영역별 점수비교('20~'21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그림 4] 내·외부 청렴도 부패경험률('16~'21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특히, 설문 개선을 통해 부패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측정범위를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부패경험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렴도 측정모형은 [그림 5]과 같이 설문조사결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전체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구성원이 내부의 관점에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련 이해관계자, 주민들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그림 5]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그리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이라 하고,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고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한다.

[표 3] 공공기관 유형분류

공기업(36개) (직원정원 50인이상, 총 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이상 자체수입액 50%이상)	시장형 (16개)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준시장형 (20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85%
준정부기관(96개) (직원이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체수입액 50%미만)	기금관리형 (13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83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281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출처 : ALIO 공공기관 지정현황('21년도)

[표 4] 공공기관 지정현황('21년 기준)

구분	내용
시장형 공기업 (16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출처 : ALIO 공공기관 지정현황('21년도)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공기업의 내부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과지표는 경영평가 등급일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등급별로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주체별로 중요시 여기는 성과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고객의 입장이라면 공기업의 성과지표로 고객만족도를 중요시할 수 있고,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입장이라면 부채비율 등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판단할 수 있다. 공기업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일하는 업체의 입장이라면 해당 공기업의 외부청렴도를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성격이나 관점에 따라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에 대한 시야도 다를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외부고객과 많은 거래를 하는 기업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성과의 평가지표는 다양하고 이들을 균형있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별하여 청렴도를 포함한 윤리경영과 공기업 경영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윤리경영과 재무적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과 재무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Cummings(2000)는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주에서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그렇지 않은 투자 포트폴리오보다 재무적 성과가 좋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박헌준 외(2001)는 우리나라 2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수준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건전할수록 수익성과 단기 상환력이 좋아지며, 기업의 경영활동이 건전하고 공정할수록 장기부채의 상환력이 좋아지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호갑·박성환·여은미(2011)은 윤리경영의 수준이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간 재무성과의 차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총자산이익률), 유동성(유동비율), 안정성(부채비율)과 같은 재무적 측면에서 윤리경영 수준이 낮은 기업과 차별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은 윤리경영 수준이 낮은 기업과 비교하여 보다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형구, 최종윤(2011)은 선의경영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t-1$ 기의 사회공헌활동이 t 기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직전년도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당해연도의 총자산이익률(ROA)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에 정(+)의 상관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전년도의 사회공헌활동이 다음 연도의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성과 관련된 매출액증가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자본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근혜(2013)는 윤리경영의 성과가 높은 기업은 기업가치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ESG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환경정책 및 관리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시장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 및 사회적 측면(Social) 보다는 친환경 경영(Environment)을 기업가치 평가에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과와 부분적으로 정(+)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익성 비율과는 정(+)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성장성 비율과는 대체로 부(-)¹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상왕(2016)는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중 내부청렴도 및 외부청렴도 등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중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지표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내부청렴도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지표에서, 외부청렴도는 경영시스템, 정책준수 지표에서 유의미한 정(+)¹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박선규(2016)는 공기업의 청렴도와 재무성과와의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종합청렴도 수준이 수익성 재무성과(매출총이익률)에 대해서는 정(+)¹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안정성 재무성과(부채비율)에는 음(-)¹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공기업 수익성은 경기변동,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부채비율이 청렴도와 관계가 있는 이유는 청렴한 조직풍토가 조직 내부적으로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부적으로는 신뢰를 제고하여 이해관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용(2017)은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측정치로 사용하여 종속변수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상의 재무예산성과 (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감축달성도)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재무성과와 유의한 부(-)¹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내부청렴도는 재무성과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재무성과와 부(-)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유는 조직청렴 수준이 높은 기관일수록 내부통제 등의 관리가 강화되고, 이에 조직문화가 경직될 수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가 획일화 되어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이 낮아졌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하였다.

2. 윤리경영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공공기관의 높은 청렴도 수준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윤리경영과 고객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지원(2007)은 정부산하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에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종속변수로 조직의 경영성과를 설정하고 생산성과 고객만족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윤리경영은 생산성 향상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윤리경영은 고객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승희(2009)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고객관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하였다.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를 매개변수로 하여 윤리경영실천이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윤리경영 실천은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은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정주(2013)는 조직청렴도와 조직몰입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조직청렴도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문조사 하여 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조직청렴도가 조직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렴의 지나친 강조가 오히려 조직의 피로도를 높여 조직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청렴의 내재화가 조직효과성을 높이는 핵심가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안춘복 외(2013)는 조직구성원의 윤리경영 대한 인식수준과 고객의 윤리경영 실천 지각수준이 각각 내부고발 의지와 기업이미지라는 매개를 통해서 직원 차원의 조직성과(조직몰입, 직무만족)와 고객 차원의 조직성과(구매의도, 브랜드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윤리경영의 실천은 조직구성원들의 내부고발 의지와 고객의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성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청렴도와 관련하여 비재무적 성과 중 하나인 사회기여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렴도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윤리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높을 것이다.

김성수(2011)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착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윤리경영을 하는 기관들의 CEO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 정책을 계획하거나 수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김수연 등(2017)의 공기업 CEO 특성이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기업 CEO가 내부승진자일 때 사회적 책임활동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위 선행연구를 보면 CEO 특성에 따라 사회적 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공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역시 공공기관별 수준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구현 지표는 장애인 고용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 일반적인 사회공헌활동이 포함되어있다.

비재무적 요인과 관련된 다른 연구로 김인동·최종인(2011)은 1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이 직무만족 (job-satisfaction) 및 조직몰입 (organizational-commitmen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윤리경영실천(공정성, 투명성, 건전성, 공헌성)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는 집단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재무적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윤리경영과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유은철·유홍림(2013)은 2011~2012년도 4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직관리 특성이 경영실적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직관리 특성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점수가 경영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렴도 점수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청렴도가 조직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실제로도 조직성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윤리경영과 청렴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김용래, 전왕국(2017)은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청렴도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경영성과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정부경영실적 평가결과는 종합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종합청렴도 점수는 상승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높은 부채비율은 종합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부채비율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종합청렴도에 음(-)의 방향으로 점수가 낮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파업은 안정된 노사관계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의 연구결과와 역방향에 따른 연구로 동일하게 도출되어 상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 기존 연구의 한계

선행연구에 따르면 윤리경영은 대체적으로 경영성과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어떤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윤리경영과 경영성과(재무적요인, 비재무적요인)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했다. 그리고 재무적 성과의 측정기준이 단순화되어 있어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여러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재무적 성과 측정 또한 대부분의 재무적 성과가 수익성 측정에만 치우쳐 공익성을 가진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를 구분하여 청렴도와외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재무적 성과로는 단순히 수익성 측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활동성 측면까지 분석하여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신뢰도 있는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공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기업성'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고 비재무적 성과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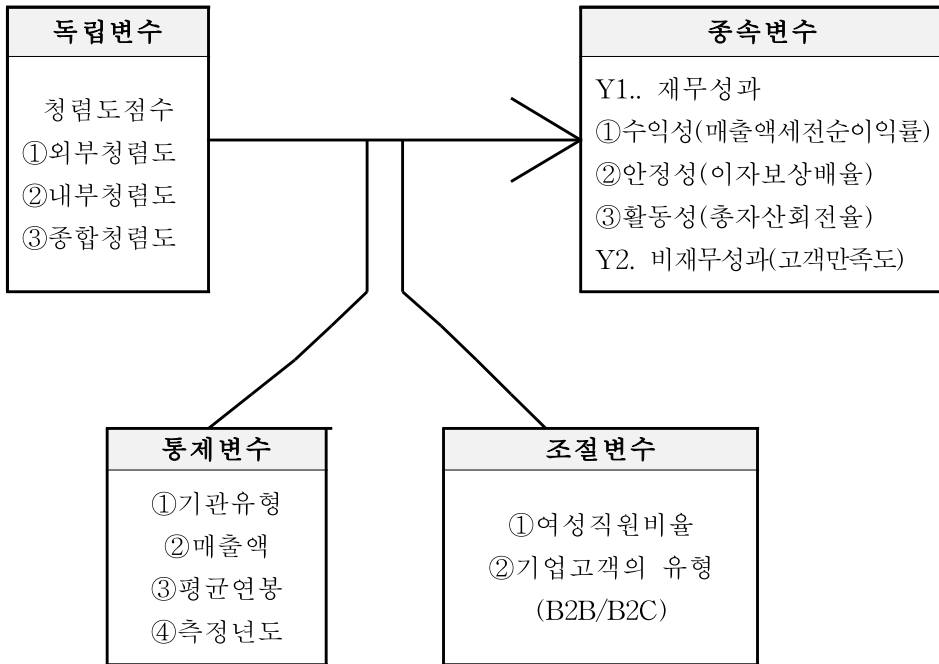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공기업의 청렴도수준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독립변수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재무적 성과측정지표와 비재무적 성과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로는 기관의 유형, 매출액, 평균연봉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수로 기업고객의 유형을 설정하여 어떤 기업이 청렴도 평가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연구 분석틀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는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의 종합청렴도 점수와 외부청렴도 점수, 내부청렴도 점수를 설정하였다.

청렴도 평가는 2021년 기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의거하여 총 59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12개)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 206,3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에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한다. 청렴도 측정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점을 기준으로 한 점수를 산정한 후 등급으로 표기하여 그 결과를 공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계량화된 점수로 발표하지 않고 1~5등급으로 공시하여 이를 5~1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청렴도 평가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저해행위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 관련 설문결과와 부패사건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는 공공기관 청렴도와 관련된 종합지표이다.

<그림 7>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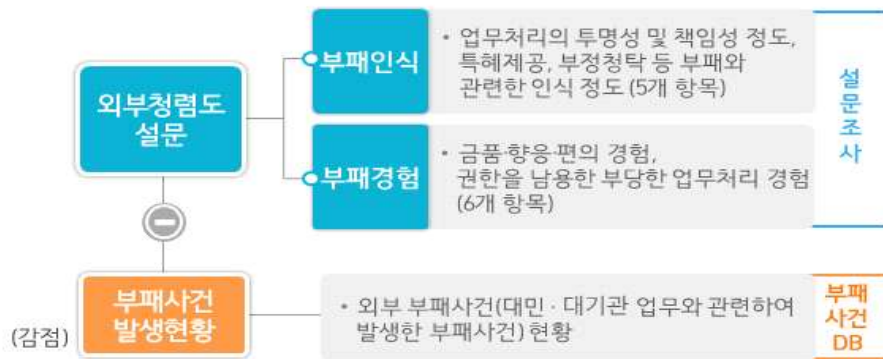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1)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한다.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업무처리의 책임성 및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등 부패와 관련된 인식정도 6개 항목과 금품·향응·편의 경험 등의 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부패사건 DataBase를 통해 행정기관 부패사건 지수와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지수를 적용하여 감점하게 된다.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그림 8>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표 5>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외부청렴도 세부 측정항목 현황

측정부문	세부항목(가중치)	배점	점수	전년대비
외부청렴도 점수		-	8.54	+0.01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249	9.04	+0.05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갑질행위)	0.204	9.14	+0.0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11	+0.05
	업무처리의 투명성	0.156	8.64	-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8.60	+0.01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26	8.19	+0.22
	향응 경험률	0.113	8.08	+0.09
	편의 경험률	0.107	8.36	+0.03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296	8.46	+0.14
	금품·향응 경험규모	0.283	8.89	+0.29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률	0.075	6.08	신규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2)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청렴문화와 관련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10개 항목과 업무청렴과 관련된 인사업무,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8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확인하여 감점 적용한다.

<표 6>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평가영역	세부항목(가중치)		배점	점수	전년대비
내부청렴도 점수			-	7.57	-0.02
청렴 문화 0.465	조직 문화 0.63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161	7.24	-0.01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	0.161	7.22	-0.7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67	8.15	+0.01
		업무처리 투명성	0.133	7.85	-0.03
		업무처리 책임성	0.130	7.98	-0.02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0.135	8.41	신규
	부패 방지 제도 0.369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13	7.97	신규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64	6.82	+0.06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447	6.69	+0.07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89	6.92	신규	
업무 청렴 0.535	인사 업무 0.41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8.36	+0.24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415	8.74	+0.32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0.389	9.03	+0.05
	예산 집행 0.33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6.28	+0.01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빈도	0.420	6.79	-0.1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규모	0.371	8.58	-0.13
	업무 지시 0.257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률	0.282	5.86	-0.22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빈도	0.718	6.88	-0.16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자료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공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 지표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을 설정하였으며, 비재무적 경영성과 지표로는 고객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 중 재무성과는 금융감독원 및 ALIO 공시자료 내 대표 계량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 안전성 지표 그리고 활동성 지표로 세분화하여 청렴도 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익성 지표로는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을 설정하여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포함하여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포착하였고, 안정성 지표로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활동성 지표로는 ‘총자산회전율’을 설정하여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본연의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비재무적 성과지표는 기재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점수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여 공공부문 신뢰도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매출액세전순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경상이익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영활동의 성과를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로서 기업의 이익변화가 매출마진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세전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계산한다. 기업실적이 양호한지 판단하는데 가장 적합한 지표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2)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크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변동이 지불해야할 금융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으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 잠재적 부실기업임을 알 수 있다.

(3)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이 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활동성 비율의 하나로서 기업의 총자산이 1년에 몇 번이나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낸다. 총자산회전율이 높으면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낮으면 과잉투자과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고객만족도(비재무적 성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객중심경영 촉진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군별로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S), 우수(A), 양호(B), 미흡(C) 등급으로 부여한다. 본 연구는 등급을 4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2. 통제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공기업 경영성과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매출액, 평균연봉, 공기업유형, 측정년도를 공통의 통제변수로 설정하였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독립변수로 검증하는 가설에서는 각각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1) 매출액

먼저 매출액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거는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 기관의 예산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먼저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산정하게 되는데 수익이 좋은 기관이 많은 예산을 배분할 여력이 된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기관이 성과를 내기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매출액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2) 평균연봉

평균연봉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거는 구성원들이 많은 보수를 받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성과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유은철·유홍림(2013)은 기관장의 연봉 및 직원의 보수액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공기업유형(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유형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거는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산의 규모 및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은 규모 및 수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 유형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박석희·이선영(2016), 이호갑(2011)은 기관유형 및 규모(매출액)에 따라 윤리경영과 경영 성과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매출액, 평균연봉, 공기업 유형,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영업활동의 성격에 따라 청렴도 수준에 따른 경영성과의 상관관계가 다를 것이라고 구분한 바 있다. 청렴도 수준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대부분 기업의 실제 경영성과, 즉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다. 따라서 윤리경영, 투명경영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현재의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조절변수를 설정하여 윤리경영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여성직원 비율

먼저 여성직원 비율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직원의 비율에 따라 기관의 경영성과나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낮아진다는 연구(김대영 2018)가 있었고, 유재민(2012) 여성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2) 고객특성에 따른 기업유형

그리고 기업의 성격에 따라 청렴도와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되어 기업의 주요고객의 유형에 따라 B2B기업과 B2C기업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업의 효과는 주요 고객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기업의 CSR활동이 전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산업별 특성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화장품과 같은 소매품에서는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가스·정유와 같은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변상민·김재환·남인우, 2013).

따라서 기관의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단순 민원이외에 금전적 거래가 있는 기업을 B2C, 그 외의 기업을 B2B라고 구분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7] 변수의 조작적 정의(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외부청렴도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점수
	내부청렴도	소속직원이 응답한 청렴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산출한 계량점수
종속 변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공기업의 연결재무대표상의 세전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산출
	이자보상배율	공기업의 연결재무대표상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산출
	총자산 회전율	공기업의 연결재무대표상의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산출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로 나온 계량점수

[표 8] 변수의 조작적 정의(통제변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통제 변수	기관유형	공기업 중 시장형공기업, 준시장형공기업에 따른 분류
	매출액	기업의 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품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말하며 공기업의 연결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총액을 기준
	평균연봉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에 12를 곱한 값
	측정년도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로 구분

[표 9] 공공기관 구분현황 (조절변수)

구분		내용
여직원 비율	개념	여성직원 수에서 전체 임직원 수를 나눈 후 100을 곱한 값
	기준	(여직원 비율이 17%이상 기업과 여직원 비율이 17%미만 기업으로 구분)
	여직원 비율 높은순	그랜드코리아레저(5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42%), 강원랜드(32%), 한국감정원(2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8%), 주택도시보증공사(26%), 한국광물자원공사(25%), 부산항만공사(25%), 인천국제공항공사(22%), 한국토지주택공사(22%), 인천항만공사(21%), 한국조폐공사(21%), 울산항만공사(21%), 한국전력공사(18%), 한국석유공사(18%), 한국마사회(15%), 여수광양항만공사(14%), 한국수자원공사(14%), 한국지역난방공사(13%), 해양환경관리공단(13%), 한국동서발전(13%), 한국중부발전(11%), 한국서부발전(11%), 한국도로공사(11%), 한국남동발전(11%), 한국수력원자력(11%), 한국전력기술(11%), 한국공항공사(11%), 한국남부발전(11%), 한국가스공사(10%), 주식회사 에스알(10%), 한국철도공사(10%), 한전KDN(10%), 한국가스기술공사(4%), 한전KPS(4%), 대한석탄공사(3%)
B2B /B2C	개념	기관의 영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단순 민원이외에 금전적 거래가 있는 기업을 B2C, 그 외의 기업을 B2B라고 정의
	B2B (21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전KPS, 해양환경관리공단
	B2C (15개)	강원랜드,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 3 절 연구가설

최만기, 김영복(2011)은 우리나라 기업은 은행이나 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차입하는 형태로 차입경영을 하는 관행을 가지는데 과도한 부채의존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으로 파산되기도 한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업들은 투자수익성이나 투자윤리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계열기업 확장과 기업결합을 무분별하게 추진함으로써 외형확대를 투자의 판단기준으로 주로 생각하였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은행 등 채권단의 감시가능과 견제기능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이렇게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부실로 이어진다면 이는 온전히 국민들의 후생손실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호갑, 박성환, 여은미(2011)는 윤리경영과 재무성과 연구를 통해 윤리경영 수준이 높은 기업은 수익성(총자산이익률), 유동성(유동비율), 안정성(부채비율)과 같은 재무 측면에서 윤리경영 수준이 낮은 기업과 차별화 될 수 있으며 윤리경영이 재무성과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오근혜(2013)는 윤리경영이 재무적 성과와 부분적으로 정(+)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수익성 비율과는 정(+)¹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성장성 비율과는 대체로 부(-)¹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에 박석희·이선영(2016)의 연구에서는 책임경영 비전제시, 사회적책임활동 강화 등 적극적 윤리경영과는 유의성은 낮지만 재무적 성과와도 어느정도 긍정적 영향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권장정책 이행 등 소극적 윤리경영요인은 재무적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영향력의 방향을 보면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수는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천은 재무성과와 정(+)¹의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가설 1. 청렴도 수준은 재무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
- 가설 1-1 외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수익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 내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수익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 가설 1-2 외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안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 내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안정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 가설 1-3 외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활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 내부청렴도 수준은 기업 활동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청렴도와 비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사기업들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에는 공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같이 기업성에만 초점을 맞춰 경영한다면 공익추구라는 기업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기업성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검토에서와 같이 손승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윤리경영 실천은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업신뢰도와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지원(2007)의 연구에서도 윤리경영은 고객만족도 향상에 유의미한 긍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청렴도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패 없는 기관, 청렴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렴한 일처리에서 오는 믿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는 신뢰비용을 낮춰주어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박석희·이선영(2016)은 적극적 윤리경영은 소극적 윤리경영에 비해 경영성과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는데 조직성과 영향관계는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재무예산관리 등으로 측정된 ‘재무적 성과’보다는 조직·인적자원관리, 노사관리, 업무효율성, 성과관리 등으로 측정된 ‘조직적 성과’ 측면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하였다.

최만기·김복영(2011)은 윤리경영 추진은 종업원에게는 개인별로 차별적이지 않은 공평한 인간존중의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개인적

역량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영(2015) 역시 윤리경영에 있어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종업원에게는 인간존중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고용차별(인종, 성별, 장애자 등), 성차별·성희롱, 프라이버시, 작업장의 안전, 부당한 노사관계, 불공정한 인사처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주(2013)는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본인의 가치와 조직의 가치와의 일치정도, 조직의 자부심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직몰입은 조직경쟁력의 필요조건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직 청렴도가 높을 경우 학연·혈연·지연과 같은 연고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줄서기 관행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인사가 대접받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렴도 수준이 높은 기관은 투명한 일처리, 청렴한 기업운영으로 고객과의 신뢰감이 형성되어 소통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그 결과 신뢰가 쌓여 고객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청렴도 수준은 비재무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 2-1 외부청렴도 수준은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가설 2-2 내부청렴도 수준은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여성직원비율, 고객특성별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여성직원비율은 청렴도수준에 따른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3-2.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은 청렴도수준에 따른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3-3. 여성직원비율은 청렴도수준에 따른 비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3-4.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은 청렴도수준에 따른 비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를 수집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기업공시시스템(DART)와 시장형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 보고서 및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표를 통해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부채비율, 총자산회전율 및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점수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습득한다.

2. 자료분석 기법

각각의 변수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등 기술적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한다. 또한, 청렴도 등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주요 개념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통제변수 간의 영향관계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후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장 연구의 분석결과

제 1 절 기술적 통계분석

1. 독립변수

독립변수로 설정한 청렴도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을 5점, 2등급을 4점, 3등급을 3점, 4등급을 2점, 5등급을 1점으로 대체하였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평균이 3.0667, 표준편차가 1.00472,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는 평균이 3.0972, 표준편차가 1.06815,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로 나타났다.

[표 10]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외부청렴도	360	3.0667	1.00472	1	5
내부청렴도	360	3.0972	1.06815	1	5

2. 종속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한 재무적 성과지표 중 매출액세전이익률은 평균이 9.6%, 표준편차가 0.34528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평균이 557%, 표준편차가 11228.9로 나타났다.

총자산회전율은 평균이 49.9%, 표준편차가 0.55382로 나타났다.

비재무적성과지표로 설정한 고객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이 2.95, 표준편차가 0.88629로 나타났다.

[표 11] 종속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재무적 성과지표	매출액세전이익률	9.6%	0.34528
	이자보상배율	55716%	11228.9
	총자산회전율	49.9%	0.55382
비재무적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2.95	0.88629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설정한 매출액을 살펴보면 평균이 5,013,052백만원, 표준편차는 10,565,096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평균이 75.275백만원, 표준편차가 9.39504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이 208개로 57.8%, 시장형 공기업은 152개로 42.2%로 나타났다.

[표 12] 통제변수 기술통계량

구분	Obs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매출액	360	3.0389	1.07317	1	5
평균연봉	360	3.0667	1.00472	1	5

구분		빈도(개)	비중
공기업 유형	시장형	208	57.78%
	준시장형	152	42.22%
	부분합	360	100%

4. 조절변수

조절변수로 설정한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평균이 17.32%, 표준편차가 0.10742로 나타났다.

고객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기업유형별로 보면 B2B기업은 210개로 58.3%, B2C기업은 150개로 41.7%로 나타났다.

[표 13] 조절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빈도(개)	비중
고객특성별 기업유형	B2B	210	58.33%
	B2C	150	41.67%
	부분합	360	100%

제 2 절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1. 다중공선성 분석

1) 피어슨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간 또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간 상관계수가 0.7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본다.

[표 12] 는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보면 종합청렴도와의 상관계수가 0.7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부청렴도와는 상관계수가 0.23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회전율과는 0.1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연봉과의 관계도 0.16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5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내부청렴도는 종합청렴도와 상관계수가 0.529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매출액세전이익률과는 상관계수가 -0.15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내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3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도와 의 관계에서는 상관계수가 0.1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내부청렴도와 평균연봉과의 상관계수는 0.230 , 여성직원 비율과의 상관계수는 -0.188 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세전이익율과 이자보상배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04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직원비율에서는 상관계수가 0.141 로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 유형과의 상관관계는 0.105 로 나타나고 있다.

이자보상배율과 여성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2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회전율과 고객만족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회전율과 기업유형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8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회전율과 평균연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0.2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총자산회전율과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7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도와 여성직원 비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5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도와 고객특성에 따른 기업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5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과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1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과 기업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21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평균연봉과 여성직원 비율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2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평균연봉과 공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1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성직원 비율과 공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상관계수가 0.3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4]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구분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매출액 세전이익률	이자 보상배율	총자산 회전율	고객 만족도
종합청렴도	1.000						
외부청렴도	0.724*	1.000					
내부청렴도	0.529*	0.235*	1.000				
매출액세전이익률	-0.0930	-0.041	-0.156*	1.000			
이자보상배율	-0.107*	-0.008	-0.133*	0.304*	1.000		
총자산회전율	0.085	0.139*	-0.073	-0.052	0.045	1.000	
고객만족도	0.157*	0.054	0.123*	0.034	-0.058	0.113*	1.000
공기업유형	0.037	0.078	0.028	0.047	-0.091	-0.185*	0.064
매출액	-0.125*	-0.094	0.103	-0.020	-0.021	0.024	0.030
평균연봉	0.222*	0.160*	0.231*	0.050	-0.092	0.201*	0.063
여성직원비율	-0.225*	-0.103	-0.188*	0.141*	0.120*	-0.171*	-0.250*
고객특성별 기업유형	-0.320*	-0.354*	-0.088	0.105*	0.053	-0.023	-0.109*

*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

2) 분산팽창지수(VIF)

다음으로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확한 검증방법 중 하나인 VIF를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생기면 추정 결과를 왜곡할수 있으며, 연구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VIF가 10보다 큰 경우 또는 0.1보다 낮은 공차한계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부터 무한대의 수를 가지므로 1이상부터 10이 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13]은 분산팽창지수와 공차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지수가 10이하이고 공차한계가 0.1 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5] 분산팽창지수(VIF) 와 공차한계(Tolerance)

구 분		분산팽창지수	공차한계
독립변수	외부청렴도	1.12	0.896709
	내부청렴도	1.14	0.880584
통제변수	공기업유형	1.19	0.838193
	매출액	1.14	0.876408
	평균연봉	1.42	0.703969
	측정연도	1.87	0.535063

[표 15] 분산팽창지수(VIF) 와 공차한계(Tolerance)

구 분		변수	VIF	공차한계	
조절변수	여성직원 비율	종합청렴도	종합청렴도	1.16	0.863551
			여성직원비율	1.14	0.874697
			상호작용	1.05	0.955115
			공기업유형	1.19	0.843189
			매출액	1.15	0.868921
			평균연봉	1.46	0.685188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1.09	0.917362
			여성직원비율	1.08	0.922664
			상호작용	1.07	0.938955
			공기업유형	1.21	0.826366
			매출액	1.13	0.882454
			평균연봉	1.42	0.705855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1.15	0.870842
			여성직원비율	1.30	0.768189
			상호작용	1.39	0.717357
	공기업유형		1.21	0.826621	
	매출액		1.11	0.897342	
	평균연봉		1.50	0.666836	
	고객특성별 기업유형	종합청렴도	종합청렴도	2.13	0.469773
			고객별 기업유형	1.22	0.817890
			상호작용	2.04	0.489089
			공기업유형	1.22	0.822550
			매출액	1.22	0.817602
			평균연봉	1.46	0.685605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	1.78	0.561625
			고객별 기업유형	1.29	0.773074
			상호작용	1.74	0.575697
공기업유형			1.21	0.823720	
매출액			1.21	0.823433	
평균연봉			1.41	0.708544	
내부청렴도	내부청렴도	1.88	0.531515		
	고객별 기업유형	1.15	0.869806		
	상호작용	1.90	0.527328		
	공기업유형	1.23	0.812462		
	매출액	1.25	0.801141		
	평균연봉	1.46	0.685847		

2. 총괄분석 결과

공기업의 청렴도수준이 재무적·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여성직원비율 및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6] 청렴도수준, 경영성과 및 조절효과 분석결과

변수		매출액 세전이익률	이자 보상배율	총자산 회전율	고객만족도
외부청렴도		0.776	0.414	0.001***	0.798
내부청렴도		0.002**	0.017**	0.001***	0.010**
공기업유형		0.909	0.148	0.000	0.819
매출액		0.356	0.613	0.181	0.700
평균연봉		0.001	0.493	0.000	0.007
측정년도	2012년	0.646	0.979	0.708	0.665
	2013년	0.876	0.320	0.916	0.995
	2014년	0.742	0.937	0.862	0.022
	2015년	0.952	0.868	0.668	0.011
	2016년	0.310	0.070	0.192	0.000
	2017년	0.468	0.805	0.173	0.002
	2018년	0.210	0.751	0.672	0.011
	2019년	0.044	0.832	0.078	0.016
	2020년	0.000	0.412	0.003	0.000
종합청렴도 × 여성직원비율		0.874	0.536	0.426	0.012**
종합청렴도 × 고객특성		0.691	0.420	0.663	0.005**
외부청렴도 × 여성직원비율		0.002**	0.566	0.065	0.007**
외부청렴도 × 고객특성		0.177	0.928	0.572	0.090
내부청렴도 × 여성직원비율		0.669	0.010**	0.080*	0.080
내부청렴도 × 고객특성		0.389	0.442	0.627	0.150

※ * : 90% 신뢰구간, ** : 95% 신뢰구간, *** : 99% 신뢰구간에서 유의적

1) 청렴도 수준과 공기업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가. 재무적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공기업의 청렴도수준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수익성 판단지표로 매출액세전이익률, 안전성 판단지표로 이자보상배율, 활동성 판단지표로 총자산회전율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유형, 매출액, 평균연봉, 추정연도를 설정하였으며, 공기업유형과 추정연도는 더미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7] 매출액세전이익률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0526	0.01852	-0.28	0.776	
내부청렴도	-0.05509	0.01750	-3.15	0.002	
공기업유형	0.00442	0.03881	0.11	0.909	
매출액	-1.65e-09	1.78e-09	-0.93	0.356	
평균연봉	0.00740	0.00228	3.25	0.001	
추정 년도	2012년	-0.03643	0.07926	-0.46	0.646
	2013년	-0.12328	0.07926	-0.16	0.876
	2014년	0.02609	0.07931	0.33	0.742
	2015년	-0.00478	0.07992	-0.16	0.952
	2016년	-0.08172	0.08030	-1.02	0.310
	2017년	-0.05818	0.08002	-0.73	0.468
	2018년	-0.10073	0.08018	-1.26	0.210
	2019년	-0.01630	0.08075	-2.02	0.044
	2020년	-0.37775	0.08075	-4.62	0.000
조정된 결정계수	0.0912				
F값	3.54				
표본 수	355				

모형의 검정통계량을 보면 F의 값이 3.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속변수의 총 변동비율을 의미한다. 조정된 결정계수는 12.7%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인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 0.00526, t값이 - 0.28, 유의확률이 0.77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 0.05509로 나타났다. t값은 - 3.15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 0.055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 1.647e-09로 나타났다. t값은 - 0.925이고 유의확률이 0.35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이자보상배율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512.6549	627.4647	0.82	0.414	
내부청렴도	-1422.376	592.8962	-2.40	0.017	
공기업유형	-1908.022	1314.61	-1.45	0.148	
매출액	0.0000305	0.0000603	0.51	0.613	
평균연봉	-52.99413	77.21965	-0.69	0.493	
측정 년도	2012년	-69.96626	2684.616	-0.03	0.979
	2013년	2671.928	2684.768	1.00	0.320
	2014년	212.0852	2686.541	0.08	0.937
	2015년	451.3081	2707.042	0.17	0.868
	2016년	4939.539	2720.106	1.82	0.070
	2017년	670.3997	2710.47	0.25	0.805
	2018년	861.8127	2715.723	0.32	0.751
	2019년	582.1015	2734.991	0.21	0.832
2020년	-2274.196	2771.271	-0.82	0.412	
결정계수	0.0543				
F값	1.39				
표본 수	355				

모형의 검정통계량을 보면 F의 값이 1.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5.4%로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512.6549로 나타났다. t값은 0.817이고 유의확률이 0.41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1422.3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99이고 유의확률이 0.01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은 -1422.376 감소하게 된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1908.022로 나타났다. t값은 -1.451이고 유의확률이 0.14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3.050e-05$ 로 나타났다. t값은 0.506이고 유의확률은 0.61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총자산회전을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9158	-0.0283864	3.23	0.001	
내부청렴도	-0.09142	-0.0268225	-3.41	0.001	
공기업유형	-0.37801	-0.0594727	-6.36	0.000	
매출액	$3.66e-09$	$2.73e-09$	1.34	0.181	
평균연봉	0.22511	0.0034934	6.44	0.000	
추정 년도	2012년	0.04551	0.1214514	0.37	0.708
	2013년	0.01287	0.1214583	0.11	0.916
	2014년	0.02118	0.1215385	0.17	0.862
	2015년	-0.05250	0.122466	-0.43	0.668
	2016년	-0.16075	0.123057	-1.31	0.192
	2017년	-0.16762	0.122621	-1.37	0.173
	2018년	-0.05206	0.1228587	-0.42	0.672
	2019년	-0.21864	0.1237303	-1.77	0.078
	2020년	-0.37584	0.1253717	-3.00	0.003
결정계수	0.1951				
F값	5.89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9.5%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0.0915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227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가 0.09158이므로 외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9158 증가하게 된다.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9142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408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이 -0.09142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9142 감소하게 된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 값이 -0.378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35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이 -0.378이므로 공기업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78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 값이 $3.66e-0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41이고 유의확률이 0.18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재무적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속변수에는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고객만족도를,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유형, 매출액, 평균연봉을 사용하였으며, 공기업유형과 측정연도는 더미처리하였다. 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0] 고객만족도 회귀분석 분석결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1184	0.0462264	0.26	0.798	
내부청렴도	0.1134892	0.0436797	2.60	0.010	
공기업유형	0.0221187	0.0968495	0.23	0.819	
매출액	-1.71e-09	4.44e-09	-0.39	0.700	
평균연봉	0.0153322	0.056889	2.70	0.007	
측정 년도	2012년	0.0857287	0.1977802	0.43	0.665
	2013년	-0.0012821	0.1977914	-0.01	0.995
	2014년	-0.4568799	0.197922	-2.31	0.022
	2015년	-0.507953	0.1994324	-2.55	0.011
	2016년	-0.7043968	0.2003948	-3.52	0.000
	2017년	-0.6364768	0.1996849	-3.19	0.002
	2018년	-0.5130001	0.2000719	-2.56	0.011
	2019년	-0.4882078	0.2014914	-2.42	0.016
	2020년	-1.205486	0.2041642	-5.90	0.000
결정계수	0.1708				
F값	5.00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17.1%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56이고 유의확률이 0.79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1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598이고 유의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113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113 증가하게 된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28이고 유의확률이 0.81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712e-0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85 이고 유의확률이 0.7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렴도와 공기업 경영성과와의 조절효과 분석

가.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 분석

(1) 종합청렴도와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

종합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 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1]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302106	0.0175269	-1.72	0.086	
여성직원비율	0.5739055	0.1733765	3.31	0.001	
상호작용	-0.0055333	0.0348157	-0.16	0.874	
공기업유형	0.0156536	0.0383863	0.41	0.684	
매출액	-2.36e-09	1.77e-09	-1.33	0.184	
평균연봉	0.0081974	0.0022923	3.58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425915	0.0786848	-0.54	0.589
	2013년	-0.0190134	0.0786731	-0.24	0.809
	2014년	-0.0040471	0.0787111	0.05	0.959
	2015년	-0.035501	0.0793179	-0.45	0.655
	2016년	-0.1288123	0.0802717	-1.60	0.109
	2017년	-0.0931687	0.0799043	-1.17	0.244
	2018년	-0.1469865	0.0800896	-1.84	0.067
	2019년	-0.1959969	0.0805061	-2.43	0.015
	2020년	-0.4274582	0.082004	-5.21	0.000
결정계수	0.1437				
F값	3.79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3.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4.4%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24이고 유의확률이 0.08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7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310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574이므로 여성직원비율 평균증심화 값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574 증가하게 된다.

여성직원비율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59이고 유의확률이 0.87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08이고 유의확률이 0.68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363e-0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32 이고 유의확률이 0.18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57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008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8 증가하게 된다.

종합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2]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674.0995	599.2115	-1.12	0.261	
여성직원비율	9812.238	5927.401	1.66	0.099	
상호작용	-736.9498	1190.282	-0.62	0.536	
공기업유형	-1602.329	1312.35	-1.22	0.223	
매출액	$2.35e-06$	0.0000606	0.04	0.969	
평균연봉	-33.80014	78.3688	-0.43	0.667	
측정 년도	2012년	-350.2145	2690.079	-0.13	0.896
	2013년	2481.794	2689.677	0.92	0.357
	2014년	-328.5692	2690.977	-0.12	0.903
	2015년	-354.219	2711.724	-0.13	0.896
	2016년	3709.944	2744.33	1.35	0.177
	2017년	2.798204	2731.771	0.00	0.999
	2018년	-227.0096	2738.105	-0.08	0.934
	2019년	-189.8798	2752.346	-0.07	0.945
	2020년	-3315.172	2803.556	-1.18	0.238
결정계수	0.0128				
F값	1.31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1.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결정계수 또한 1.3%으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674.09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25이고 유의확률이 0.26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9812.23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655이고 유의확률이 0.09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736.9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19이고 유의확률이 0.53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602.32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21이고 유의확률이 0.22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347E-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39이고 유의확률이 0.96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3.80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31이고 유의확률이 0.66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3]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005473	0.027451	-0.02	0.984	
여성직원비율	-0.796821	0.271545	-2.93	0.004	
상호작용	-0.0434236	0.054529	-0.08	0.426	
공기업유형	-0.3628668	0.0601212	-6.04	0.000	
매출액	1.43e-09	2.78e-09	0.51	0.607	
평균연봉	0.0198055	0.0035902	5.52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343056	0.1232374	0.28	0.781
	2013년	0.0211454	0.123219	0.17	0.864
	2014년	0.013708	0.1232785	0.11	0.912
	2015년	-0.0631191	0.124229	-0.51	0.612
	2016년	-0.1712505	0.1257227	-1.36	0.174
	2017년	-0.1300294	0.1251474	-1.04	0.300
	2018년	-0.0357579	0.1254376	-0.29	0.776
	2019년	-0.1988954	0.12609	-1.58	0.116
2020년	-0.338959	0.128436	-2.64	0.009	
결정계수	0.1749				
F값	4.79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7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7.5%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0이고 유의확률이 0.98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79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934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797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797 감소하게 된다.

여성직원비율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4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796이고 유의확률이 0.42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6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036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363이므로 공기업을 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63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430e-0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515이고 유의확률이 0.60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51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020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20 증가하게 된다.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4]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753804	0.0430549	1.75	0.081	
여성직원비율	-1.307298	0.4258994	-3.07	0.002	
상호작용	0.2151672	0.0855249	2.52	0.012	
공기업유형	0.0043312	0.0942958	0.05	0.963	
매출액	4.74e-10	4.36e-09	0.11	0.913	
평균연봉	0.0117596	0.005631	2.09	0.038	
측정 년도	2012년	0.1219306	0.1932893	0.63	0.529
	2013년	0.0259584	0.1932603	0.13	0.893
	2014년	-0.4088728	0.1933538	-2.11	0.035
	2015년	-0.4354924	0.1948445	-2.24	0.026
	2016년	-0.5551182	0.1971873	-2.82	0.005
	2017년	-0.5376789	0.1962849	-2.74	0.006
	2018년	-0.3958183	0.1967401	-2.01	0.045
	2019년	-0.3920148	0.1977633	-1.98	0.048
	2020년	-1.060013	0.2014429	-5.26	0.000
결정계수	0.2115				
F값	6.06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6.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21.2%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 값이 0.07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51이고 유의확률이 0.08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3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70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1.307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1.307 감소하게 된다.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516이고 유의확률이 0.01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215이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215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46이고 유의확률이 0.96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4.738E-1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09이고 유의확률이 0.91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88이고 유의확률이 0.03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012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012 증가하게 된다.

(2) 외부청렴도와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

외부 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5]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204687	0.0179881	-1.14	0.256	
여성직원비율	0.6429526	0.1671354	3.85	0.000	
상호작용	-0.5521078	0.1793726	-3.08	0.002	
공기업유형	0.0019958	0.0383905	0.05	0.959	
매출액	-1.71e-09	1.74e09	-0.98	0.328	
평균연봉	0.0074038	0.0022361	3.31	0.001	
측정 년도	2012년	-0.0300549	0.0779038	-0.39	0.700
	2013년	-0.0048436	0.077936	-0.06	0.950
	2014년	0.020671	0.07805	0.26	0.791
	2015년	-0.0191736	0.0787239	-0.24	0.808
	2016년	-0.0996822	0.0793188	-1.26	0.210
	2017년	-0.0830934	0.0791627	-1.05	0.295
	2018년	-0.1348851	0.0794259	-1.70	0.090
	2019년	0.1781301	0.0799196	-2.23	0.026
	2020년	0.4028923	0.0813036	-4.96	0.000
결정계수	0.1606				
F값	4.32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6.1%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38이고 유의확률이 0.25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64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84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643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643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52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3.078 이고 유의확률이 0.002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552 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552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외부 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2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052 이고 유의확률이 0.959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708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980 이고 유의확률이 0.32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3.311 이고 유의확률이 0.0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007 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7 증가하게 된다.

외부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6]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236.2082	622.2439	0.38	0.704	
여성직원비율	12110.36	5781.542	2.09	0.037	
상호작용	-3561.293	6204.849	-0.57	0.566	
공기업유형	-1688.167	1328.002	-1.27	0.205	
매출액	0.0000225	0.0000603	0.37	0.709	
평균연봉	-59.76624	77.35047	-0.77	0.440	
측정 년도	2012년	-63.26547	2694.846	-0.02	0.981
	2013년	2713.993	2695.96	1.01	0.315
	2014년	-121.3438	2699.903	-0.04	0.964
	2015년	-52.96468	2723.215	-0.02	0.984
	2016년	4285.262	2743.793	1.56	0.119
	2017년	56.51647	2738.392	0.02	0.984
	2018년	61.65456	2747.498	0.02	0.982
	2019년	71.07022	2764.575	0.03	0.980
2020년	-3015.027	2812.449	-1.07	0.284	
결정계수	0.0513				
F값	1.22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1.2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5.13%으로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36.2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80이고 유의확률이 0.7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110.35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095이고 유의확률이 0.0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2110.360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은 12110.360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561.29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574이고 유의확률이 0.56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688.16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71이고 유의확률이 0.2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248E-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73이고 유의확률이 0.70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59.76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773이고 유의확률이 0.44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7]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537861	0.0281383	1.91	0.057	
여성직원비율	-0.0698242	0.2614456	-2.67	0.008	
상호작용	-0.5198351	0.2805878	-1.85	0.065	
공기업유형	-0.3830557	0.0600532	-6.38	0.000	
매출액	2.61e-09	2.73e-09	0.96	0.338	
평균연봉	0.0185757	0.0034978	5.31	0.000	
추정 년도	2012년	0.0574028	0.1218629	0.47	0.638
	2013년	0.0393413	0.1219133	0.32	0.747
	2014년	0.0338728	0.1220916	0.28	0.782
	2015년	-0.0335341	0.1231458	-0.27	0.786
	2016년	-0.1329912	0.1240763	-1.07	0.285
	2017년	-0.1228212	0.1238321	-0.99	0.322
	2018년	-0.0093238	0.1242439	-0.08	0.940
	2019년	-0.1696585	0.1250161	-1.36	0.176
	2020년	-0.317804	0.127181	-2.50	0.013
결정계수	0.1932				
F값	5.41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4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 19.3%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5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911이고 유의확률이 0.05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69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71이고 유의확률이 0.00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698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698 감소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853이고 유의확률이 0.06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8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37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383이므로 공기업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83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614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959이고 유의확률이 0.33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31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19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19 증가하게 된다.

외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8]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412359	0.044787	0.92	0.358	
여성직원비율	-1.619089	0.4161362	-3.89	0.000	
상호작용	1.214605	0.4466044	2.72	0.007	
공기업유형	0.0272728	0.0955851	0.29	0.776	
매출액	-1.75e-09	4.34e-09	-0.40	0.687	
평균연봉	0.0146694	0.0055674	2.63	0.009	
측정 년도	2012년	0.0726287	0.193966	0.37	0.708
	2013년	-0.0145696	0.1940462	-0.08	0.940
	2014년	-0.4423777	0.19433	-2.28	0.023
	2015년	-0.4714071	0.1960079	-2.41	0.017
	2016년	-0.6581756	0.1974891	-3.33	0.001
	2017년	-0.5710032	0.1971004	-2.90	0.004
	2018년	-0.4262425	0.1977557	-2.16	0.032
	2019년	-0.4450328	0.1989849	-2.24	0.026
2020년	-1.137459	0.2024307	-5.62	0.000	
결정계수	5.86				
F값	0.2060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20.6%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4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921이고 유의확률이 0.35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61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89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619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1.619 감소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20이고 유의확률이 0.00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1.215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1.215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외부 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85이고 유의확률이 0.77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748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03 이고 유의확률이 0.68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35이고 유의확률이 0.00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15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015 증가하게 된다.

(3) 내부청렴도와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

내부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29]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0.0481765	0.0173427	-2.78	0.006	
여성직원비율	0.5958954	0.1837539	3.24	0.001	
상호작용	0.0558419	0.1305858	0.43	0.669	
공기업유형	0.0118268	0.0385067	0.31	0.759	
매출액	-1.47e-09	1.73e-09	-0.85	0.396	
평균연봉	0.0082916	0.0023079	3.59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385792	0.0780419	-0.49	0.621
	2013년	-0.0203977	0.0782416	-0.26	0.794
	2014년	0.0134109	0.0782439	0.17	0.864
	2015년	-0.0234633	0.0787532	-0.30	0.766
	2016년	-0.1064901	0.0793409	-1.34	0.180
	2017년	-0.0893042	0.0793803	-1.13	0.261
	2018년	-0.1391399	0.0800379	-1.74	0.083
	2019년	-0.1915109	0.0799535	-2.40	0.017
2020년	-0.4160771	0.0814368	-5.11	0.000	
결정계수	0.1552				
F값	4.15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1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5.5%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4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78이고 유의확률이 0.00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48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48 감소하게 된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9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243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596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596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5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28이고 유의확률이 0.66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07이고 유의확률이 0.75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473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50 이고 유의확률이 0.39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59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8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8 증가하게 된다.

내부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0]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846.1221	589.2581	-1.44	0.152	
여성직원비율	3510.906	6243.476	0.56	0.574	
상호작용	-11570.71	4436.964	-2.61	0.010	
공기업유형	-2163.285	1308.358	-1.65	0.099	
매출액	0.0000258	0.0000589	0.44	0.661	
평균연봉	12.12533	78.41623	0.15	0.877	
측정 년도	2012년	-237.4127	2651.66	-0.09	0.929
	2013년	2923.567	2658.445	1.10	0.272
	2014년	216.2749	2658.524	0.08	0.935
	2015년	118.3294	2675.829	0.04	0.965
	2016년	4463.473	2695.796	1.66	0.099
	2017년	315.5	2697.137	0.12	0.907
	2018년	884.1648	2719.48	0.33	0.745
	2019년	149.6886	2716.611	0.06	0.956
	2020년	-2659.446	2767.008	-0.96	0.337
결정계수	0.0789				
F값	1.94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1.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7.9%으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846.12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36이고 유의확률이 0.15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510.90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562이고 유의확률이 0.57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1570.71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08이고 유의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1570.710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은 -11570.710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내부 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163.28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653이고 유의확률이 0.09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584e-5$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39이고 유의확률이 0.66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12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55이고 유의확률이 0.87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1]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0.0768332	0.043036	1.79	0.075	
여성직원비율	-1.150968	0.4559869	-2.52	0.012	
상호작용	0.5690551	0.3240498	1.76	0.080	
공기업유형	0.0295187	0.0955548	0.31	0.758	
매출액	-2.21e-09	4.30e-09	-0.51	0.608	
평균연봉	0.0105489	0.0057271	1.84	0.066	
측정 년도	2012년	0.093408	0.1936617	0.48	0.630
	2013년	-0.0057875	0.194572	-0.03	0.976
	2014년	-0.4424642	0.194163	-2.28	0.023
	2015년	-0.4700306	0.1954269	-2.41	0.017
	2016년	-0.6469625	0.1968851	-3.29	0.001
	2017년	-0.5658596	0.1969831	-2.89	0.004
	2018년	-0.4642673	0.1986148	-2.34	0.020
	2019년	-0.424983	0.1984053	-2.14	0.033
	2020년	-1.12394	0.202086	-5.56	0.000
결정계수	0.2063				
F값	5.87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9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20.6%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7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18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75이므로 내부청렴도의 값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75 감소하게 된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15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053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150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1.150 감소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4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61이고 유의확률이 0.03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435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435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내부 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9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578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391이므로 Public_enterprise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91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183e-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16이고 유의확률이 0.41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6.49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23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23 증가하게 된다.

내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직원비율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2]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여성직원비율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0.0768332	0.043036	1.79	0.075	
여성직원비율	-1.150968	0.4559869	-2.52	0.012	
상호작용	0.5690551	0.3240498	1.76	0.080	
공기업유형	0.0295187	0.0955548	0.31	0.758	
매출액	-2.21e-09	4.30e-09	-0.51	0.608	
평균연봉	0.0105489	0.0057271	1.84	0.066	
측정 년도	2012년	0.093408	0.1936617	0.48	0.630
	2013년	-0.0057875	0.194572	-0.03	0.976
	2014년	-0.4424642	0.194163	-2.28	0.023
	2015년	-0.4700306	0.1954269	-2.41	0.017
	2016년	-0.6469625	0.1968851	-3.29	0.001
	2017년	-0.5658596	0.1969831	-2.89	0.004
	2018년	-0.4642673	0.1986148	-2.34	0.020
	2019년	-0.424983	0.1984053	-2.14	0.033
2020년	-1.12394	0.202086	-5.56	0.000	
결정계수	0.2063				
F값	5.87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20.6%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7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85이고 유의확률이 0.07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직원비율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15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524이고 유의확률이 0.01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151이므로 여성직원비율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1.151 감소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6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56이고 유의확률이 0.08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3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09이고 유의확률이 0.75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207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513 이고 유의확률이 0.60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1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842 이고 유의확률이 0.066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고객특성별 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분석

(1) 종합청렴도와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종합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특성별 기업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3]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246262	0.0238984	-1.03	0.304	
고객유형별	0.1044826	0.0394574	2.65	0.008	
상호작용	-0.013853	0.0348238	-0.40	0.691	
공기업유형	0.0270045	0.0390858	0.69	0.490	
매출액	$-4.02e-09$	$1.84e-09$	-2.19	0.029	
평균연봉	0.0079949	0.0023046	3.47	0.001	
측정 년도	2012년	-0.0395747	0.0791398	-0.50	0.617
	2013년	-0.0116477	0.0791119	-0.15	0.883
	2014년	0.0155088	0.0791147	0.20	0.845
	2015년	-0.0202011	0.0796296	-0.25	0.800
	2016년	-0.1147683	0.0805843	-1.42	0.155
	2017년	-0.0722605	0.0799471	-0.90	0.367
	2018년	-0.1181089	0.0799716	-1.48	0.141
	2019년	-0.1779762	0.0806364	-2.21	0.028
2020년	-0.4052045	0.0819861	-4.94	0.000	
결정계수	0.1339				
F값	3.49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3.4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3.4%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5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30 이고 유의확률이 0.304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04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48 이고 유의확률이 0.00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104 이므로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B2C이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104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4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98 이고 유의확률이 0.69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91 이고 유의확률이 0.49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4.022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88 이고 유의확률이 0.029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0 이므로 sales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Profit_before_tax은 0.000 감소하게 된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8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469 이고 유의확률이 0.0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8 이므로 salary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8 증가하게 된다.

종합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4]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453.7267	815.6185	-0.56	0.578	
고객유형별	239.5287	1346.694	0.18	0.859	
상호작용	-959.7743	1188.548	-0.81	0.420	
공기업유형	-1656.524	1334.011	-1.24	0.215	
매출액	-7.79e-06	0.0000628	-0.12	0.901	
평균연봉	-48.48368	78.65732	-0.62	0.538	
측정 년도	2012년	-341.7563	2701.065	-0.13	0.899
	2013년	2571.016	2700.114	0.95	0.342
	2014년	-166.9244	2700.207	-0.06	0.951
	2015년	-89.53249	2717.783	-0.03	0.974
	2016년	3979.644	2750.366	1.45	0.149
	2017년	468.8746	2728.619	0.17	0.864
	2018년	309.6915	2729.455	0.11	0.910
	2019년	234.0251	2752.143	0.09	0.932
2020년	-2796.794	2798.211	-1.00	0.318	
결정계수	0.0471				
F값	1.12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1.1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r결정계수는 4.7%으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비표준화 베타의 값이 -453.72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556이고 유의확률이 0.57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39.52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78이고 유의확률이 0.85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959.77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08이고 유의확률이 0.42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656.52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242이고 유의확률이 0.21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7.791E-6$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24 이고 유의확률이 0.90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48.484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16 이고 유의확률이 0.53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5]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270337	0.0376874	0.72	0.474	
고객유형별	0.0070752	0.0622239	0.11	0.910	
상호작용	-0.0239468	0.0549167	-0.44	0.663	
공기업유형	-0.3542083	0.0616378	-5.75	0.000	
매출액	1.94e-09	2.90e-09	0.67	0.504	
평균연봉	0.0211903	0.0036344	5.83	0.000	
추정 년도	2012년	0.0343582	0.1248024	0.28	0.783
	2013년	0.0145295	0.1247584	0.12	0.907
	2014년	0.0011699	0.1247627	0.01	0.993
	2015년	-0.0846666	0.1255748	-0.67	0.501
	2016년	-0.1936593	0.1270803	-1.52	0.128
	2017년	-0.1697404	0.1260755	-1.35	0.179
	2018년	-0.0800786	0.1261141	-0.63	0.526
	2019년	-0.2353052	0.1271624	-1.85	0.065
2020년	-0.3834197	0.129291	-2.97	0.003	
결정계수	0.1540				
F값	4.11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1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5.4%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17이고 유의확률이 0.47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14이고 유의확률이 0.9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36이고 유의확률이 0.66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5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747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354이므로 공기업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54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940E-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69이고 유의확률이 0.5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83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21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21 증가하게 된다.

전체 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6]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종합청렴도	-0.004886	0.0591521	-0.08	0.934	
고객유형별	-0.0553525	0.0976632	-0.57	0.571	
상호작용	0.2436334	0.0861943	2.83	0.005	
공기업유형	0.0077897	0.0967433	0.08	0.936	
매출액	2.10e-09	4.55e-09	0.46	0.645	
평균연봉	0.0135459	0.0057043	2.37	0.018	
측정 년도	2012년	0.1201503	0.195883	0.61	0.540
	2013년	0.0135149	0.1958141	0.07	0.945
	2014년	-0.430929	0.1958208	-2.20	0.028
	2015년	-0.47071	0.1970954	-2.39	0.017
	2016년	-0.5906024	0.1994584	-2.96	0.003
	2017년	-0.5981293	0.1978813	-3.02	0.003
	2018년	-0.4666726	0.1979419	-2.36	0.019
	2019년	-0.4467375	0.1995872	-2.24	0.026
2020년	-1.126988	0.2029281	-5.55	0.000	
결정계수	0.1904				
F값	5.32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5.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19.0%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3이고 유의확률이 0.93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67이고 유의확률이 0.57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4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27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244이므로 TI_Type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244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객유형이 B2C이면 B2B보다 전체 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81이고 유의확률이 0.93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101E-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462이고 유의확률이 0.64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75이고 유의확률이 0.01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14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014 증가하게 된다.

(2) 외부청렴도와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외부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7]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17568	0.023399	0.75	0.453	
고객유형별	0.1130903	0.0406669	2.78	0.006	
상호작용	-0.0534687	0.0395667	-1.35	0.177	
공기업유형	0.0284182	0.0391368	0.73	0.468	
매출액	-3.63e-09	1.84e-09	-1.98	0.049	
평균연봉	0.0070116	0.0022716	3.09	0.002	
추정 년도	2012년	-0.0389413	0.0793598	-0.49	0.624
	2013년	0.0093557	0.0792755	-0.12	0.906
	2014년	0.0190755	0.0792629	0.24	0.810
	2015년	-0.0161996	0.0798917	-0.20	0.839
	2016년	-0.1009973	0.0802376	-1.26	0.209
	2017년	-0.047135	0.0801314	-0.93	0.352
	2018년	-0.1100024	0.0801444	-1.37	0.171
	2019년	-0.1771191	0.0808288	-2.19	0.029
	2020년	-0.4016442	0.0820233	-4.90	0.000
결정계수	0.1304				
F값	3.39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3.39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13.0%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51이고 유의확률이 0.45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1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81이고 유의확률이 0.00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113이므로 Type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113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5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51이고 유의확률이 0.17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26이고 유의확률이 0.46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628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976 이고 유의확률이 0.049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0 이므로 매출액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0 감소하게 된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87 이고 유의확률이 0.002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7 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7 증가하게 된다.

외부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8]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268.4477	800.0495	0.34	0.737	
고객유형별	1040.951	1390.464	0.75	0.455	
상호작용	121.8904	1352.846	0.09	0.928	
공기업유형	-1521.489	1338.148	-1.14	0.256	
매출액	$3.17e-06$	0.0000628	0.05	0.960	
평균연봉	-77.25899	77.66871	-0.99	0.321	
측정 년도	2012년	-26.6201	2713.434	-0.01	0.992
	2013년	2820.789	2710.553	1.04	0.299
	2014년	33.38023	2710.121	0.01	0.990
	2015년	239.8542	2731.62	0.09	0.930
	2016년	4605.752	2743.447	1.68	0.094
	2017년	551.9929	2739.815	0.20	0.840
	2018년	711.8945	2740.26	0.26	0.795
	2019년	490.6239	2763.662	0.18	0.859
	2020년	-2477.054	2804.502	-0.88	0.378
결정계수	0.0398				
F값	0.94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0.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4.0%으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68.44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36이고 유의확률이 0.7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040.95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49이고 유의확률이 0.45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1.89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90이고 유의확률이 0.92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521.48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37이고 유의확률이 0.25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173E-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51이고 유의확률이 0.96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77.25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995이고 유의확률이 0.32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39]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883465	0.0364795	2.42	0.016	
고객유형별	0.0428956	0.0634004	0.68	0.499	
상호작용	-0.034857	0.0616852	-0.57	0.572	
공기업유형	-0.3574253	0.061015	-5.86	0.000	
매출액	2.16e-09	2.86e-09	0.76	0.451	
평균연봉	0.0206793	0.0035414	5.84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430903	0.1237233	0.35	0.728
	2013년	0.0190407	0.123592	0.15	0.878
	2014년	0.0078489	0.1235722	0.06	0.949
	2015년	-0.069311	0.1245525	-0.56	0.578
	2016년	-0.183073	0.1250918	-1.46	0.144
	2017년	-0.1772535	0.1249262	-1.42	0.157
	2018년	-0.0626727	0.1249465	-0.50	0.616
	2019년	-0.2268304	0.1260135	-1.80	0.073
	2020년	-0.3909208	0.1278757	-3.06	0.002
결정계수	0.1699				
F값	4.62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6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 17.0%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8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22이고 유의확률이 0.01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88이므로 외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88 증가하게 된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4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77이고 유의확률이 0.49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65이고 유의확률이 0.57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5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858 이고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357 이므로 공기업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57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161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55 이고 유의확률이 0.451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1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5.839 이고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21 이므로 salary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21 증가하게 된다.

외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40]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외부청렴도	-0.0361446	0.0587052	-0.62	0.539	
고객유형별	-0.0886036	0.102028	-0.87	0.386	
상호작용	0.1688264	0.0992678	1.70	0.090	
공기업유형	-0.0057948	0.0981892	-0.06	0.953	
매출액	6.68e-10	4.61e-09	0.14	0.885	
평균연봉	0.017479	0.0056991	3.07	0.002	
측정 년도	2012년	0.1011269	0.1991036	0.51	0.612
	2013년	0.0007924	0.1988922	-0.00	0.997
	2014년	-0.4373456	0.1988605	-2.20	0.029
	2015년	-0.4787941	0.200438	-2.39	0.017
	2016년	-0.6689543	0.2013059	-3.32	0.001
	2017년	-0.6093634	0.2010394	-3.03	0.003
	2018년	-0.4948239	0.201072	-2.46	0.014
	2019년	-0.463799	0.2027891	-2.29	0.023
2020년	-1.167468	0.2057859	-5.67	0.000	
결정계수	0.1648				
F값	4.46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16.5%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외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36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16 이고 유의확률이 0.539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8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68 이고 유의확률이 0.386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6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701 이고 유의확률이 0.09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6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059 이고 유의확률이 0.953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6.676E-10$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145 이고 유의확률이 0.88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7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67 이고 유의확률이 0.002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17 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017 증가하게 된다.

(3) 내부청렴도와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내부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41]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0.0644448	0.0222502	-2.90	0.004	
고객유형별	0.1153193	0.0378758	3.04	0.003	
상호작용	0.028965	0.0335675	0.86	0.389	
공기업유형	0.0254898	0.038931	0.65	0.513	
매출액	-3.42e-09	1.84e-09	-1.86	0.064	
평균연봉	0.0083511	0.002281	3.66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319607	0.0783007	-0.41	0.683
	2013년	-0.012112	0.0782636	-0.15	0.877
	2014년	0.0288267	0.0783051	0.37	0.713
	2015년	-0.0032966	0.078843	-0.04	0.967
	2016년	-0.0852414	0.07945	-1.07	0.284
	2017년	-0.061542	0.0794238	-0.77	0.439
	2018년	-0.1048695	0.0790056	-1.33	0.185
	2019년	-0.1704413	0.0798086	-2.14	0.033
2020년	-0.3885544	0.0810827	-4.79	0.000	
결정계수	0.1513				
F값	4.03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결정계수는 15.1%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6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96이고 유의확률이 0.00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64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64 감소하게 된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45이고 유의확률이 0.00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115이므로 Type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Profit_before_tax은 0.115 증가하게 된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863이고 유의확률이 0.38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655이고 유의확률이 0.513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418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859 이고 유의확률이 0.064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0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661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08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08 증가하게 된다.

내부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42]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904.8876	764.1338	-1.18	0.237	
고객유형별	508.379	1300.76	0.39	0.696	
상호작용	-886.8974	1152.799	-0.77	0.442	
공기업유형	-1846.334	1336.997	-1.38	0.168	
매출액	0.0000219	0.0000631	0.35	0.729	
평균연봉	-37.58904	78.3347	-0.48	0.632	
측정 년도	2012년	-246.1873	2689.062	-0.09	0.927
	2013년	2650.169	2687.786	0.99	0.325
	2014년	57.284	2689.213	0.02	0.983
	2015년	135.308	2707.685	0.05	0.960
	2016년	4581.627	2728.53	1.68	0.094
	2017년	441.7903	2727.63	0.16	0.871
	2018년	580.8562	2713.268	0.21	0.831
	2019년	328.2343	2740.847	0.12	0.905
2020년	-2496.571	2784.603	-0.90	0.371	
결정계수	0.0546				
F값	1.31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1.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5.5%으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904.888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184이고 유의확률이 0.23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508.37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91이고 유의확률이 0.69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886.897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769이고 유의확률이 0.44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846.33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381이고 유의확률이 0.16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190E-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347이고 유의확률이 0.72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37.58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480이고 유의확률이 0.63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43]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청렴도	-0.0829795	0.0350855	-2.37	0.019	
고객유형별	-0.0124413	0.0597248	-0.21	0.835	
상호작용	0.0257464	0.0529312	0.49	0.627	
공기업유형	-0.3640672	0.0613887	-5.93	0.000	
매출액	2.30e-09	2.90e-09	0.79	0.428	
평균연봉	0.023213	0.0035968	6.45	0.000	
측정 년도	2012년	0.033407	0.1234692	0.27	0.787
	2013년	0.0034711	0.1234106	0.03	0.978
	2014년	0.0074095	0.1234762	0.06	0.952
	2015년	-0.0788793	0.1243243	-0.63	0.526
	2016년	-0.1805717	0.1252814	-1.44	0.150
	2017년	-0.1587349	0.1252401	-1.27	0.206
	2018년	-0.0810227	0.1245806	-0.65	0.516
	2019년	-0.2339853	0.125847	-1.86	0.064
	2020년	-0.3747204	0.127856	-2.93	0.004
결정계수	0.1711				
F값	4.67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7.1%으로 보통인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청렴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83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365 이고 유의확률이 0.019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83 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83 감소하게 된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2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2.208 이고 유의확률이 0.83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6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486 이고 유의확률이 0.627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364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5.931 이고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364 이므로 공기업유형이 시장형이면 총자산회전율은 -0.364 감소하게 된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2.301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0.794 이고 유의확률이 0.428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3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 값이 6.454 이고 유의확률이 0.000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23 이므로 평균연봉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23 증가하게 된다.

내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객유형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44]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내부칭럼도	0.0592078	0.0560257	1.06	0.291	
고객유형별	-0.1031031	0.0953706	-1.08	0.280	
상호작용	0.1218106	0.0845222	1.44	0.150	
공기업유형	0.020102	0.0980275	0.21	0.838	
매출액	-1.27e-09	4.63e-09	-0.27	0.784	
평균연봉	0.0137498	0.0057434	2.39	0.017	
측정 년도	2012년	0.0964771	0.1971598	0.49	0.625
	2013년	-0.0061995	0.1970662	-0.03	0.975
	2014년	-0.449632	0.1971709	-2.28	0.023
	2015년	-0.4906757	0.1985252	-2.47	0.014
	2016년	-0.6753924	0.2000536	-3.38	0.001
	2017년	-0.6003875	0.1999876	-3.00	0.003
	2018년	-0.500602	0.1989345	-2.52	0.012
	2019년	-0.4673473	0.2009566	-2.33	0.021
2020년	-1.174406	0.2041648	-5.75	0.000	
결정계수	0.1790				
F값	4.93				
표본 수	355				

모형 F값이 4.9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이 결정계수와 같은 것으로 변수 요소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총 변동 비율을 의미한다. R2은 17.9%으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설명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유의수준은 0.05(95%)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0.05보다 높으면 유의하지 않는 결과이고 낮으면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부칭럼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59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57이고 유의확률이 0.29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0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081이고 유의확률이 0.28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2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1.441이고 유의확률이 0.15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유형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20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05이고 유의확률이 0.838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72e-9$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0.275 이고 유의확률이 0.784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14 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94 이고 유의확률이 0.017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014 이므로 salary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014 증가하게 된다.

제 3 절 분석결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설의 채택여부는 아래 [표 44]와 같다

[표 45] 가설채택 여부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1-1	외부청렴도는 매출액세전이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다	기각
1-2	내부청렴도는 매출액세전이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2-1	외부청렴도는 이자보상배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기각
2-2	내부청렴도는 이자보상배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3-1	외부청렴도는 총자산회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3-2	내부청렴도는 총자산회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4-1	외부청렴도는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기각
4-2	내부청렴도는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표 46] 가설채택 여부(조절효과, 여성직원비율)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5-1	종합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2	외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5-3	내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1	종합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2	내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6-3	외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7-1	종합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7-2	외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7-3	내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1	종합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2	외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3	내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표 47] 가설채택 여부(조절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9-1	종합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9-2	외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9-3	내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0-1	종합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0-2	외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0-3	내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1	종합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2	외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1-3	내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1	종합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2	외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2-3	내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 : 90% 신뢰구간, ** : 95% 신뢰구간, *** : 99% 신뢰구간에서 유의적

1. 외부청렴도 수준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의 외부청렴도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외부청렴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와 비재무적 성과(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44]의 가설 1-1, 2-1, 4-1에 따르면 외부청렴도 수준과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고객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다만 가설 3-1에 따르면, 외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회귀계수가 0.09158 로 나타났는데 즉 외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9158 증가함을 뜻한다. 따라서 가설 3은 일부 채택되었다.

2. 내부청렴도 수준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의 내부청렴도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하는 내부청렴도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와 비재무적 성과(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44]의 가설 1-2, 2-2, 3-2, 4-2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수준과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고객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먼저 내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0.05509로 나타났다. t값은 -3.15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055 감소하게 된다. 즉,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자보상배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1422.376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99이고 유의확률이 0.01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은 -1422.376 감소하게 된다. 즉,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총자산회전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09142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408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 값이 -0.09142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09142 감소하게 된다. 즉,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고객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113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598이고 유의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113이므로 내부청렴도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113 증가하게 된다. 즉, 양(+)²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여성직원비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1)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과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청렴도 결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와 비재무적 성과(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45]의 가설 5-1, 5-3, 6-1, 6-2, 7-1, 7-2, 8-3에 따르면 청렴도 수준과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고객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5] 가설 5-2, 6-3, 7-3, 8-1, 8-2 에 따르면 여성직원비율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가설 5-2을 살펴보면 회귀계수의 값이 -0.55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78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552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매출액세전이익률은 -0.552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외부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7-2에 따르면 회귀계수의 값이 -11570.71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608이고 유의확률이 0.01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11570.710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이자보상배율은 -11570.710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내부 청렴도가 이자보상배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7-3에 따르면 회귀계수의 값이 -.43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161이고 유의확률이 0.03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435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총자산회전율은 -0.435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내부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8-1에 따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516이고 유의확률이 0.01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0.215이므로 상호작용 효과가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215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8-3에 따르면 회귀계수의 값이 1.215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20이고 유의확률이 0.00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값이 1.215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1.215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여성비율의 증가할수록 외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2)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간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 기업유형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표하는 청렴도 결과로 설정하고 종속변수를 재무적 성과(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와 비재무적 성과(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표 46]의 가설 9-1, 9-2, 9-3, 10-1, 10-2, 10-3, 11-1, 11-2, 11-3, 12-2, 12-3 에 따르면 청렴도 수준과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고객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설 12-1 에 따르면 회귀계수의 값이 0.244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827이고 유의확률이 0.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B)의 값이 0.244이므로 상호작용항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고객만족도는 0.244 증가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고객유형이 B2C이면 B2B보다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국민의 필요에 따라 국고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따라서 주인도 국민이며 주요 고객도 국민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공공성을 지니게 되며 사회적 책임 또한 민간기업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이러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렴’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에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고, 재무적 성과는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로 세분화하여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또한 어떠한 조건하에서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간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청렴’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의 반석을 닦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고 종속변수로는 ALIO, DART 등 기업공시사이트를 활용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비재무적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48] 가설채택 여부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1-2	내부청렴도는 매출액세전이익률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2-2	내부청렴도는 이자보상배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3-1	외부청렴도는 총자산회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3-2	내부청렴도는 총자산회전율과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4-2	내부청렴도는 고객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채택**

[표 49] 가설채택 여부(조절효과, 여성직원비율)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5-2	외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7-2	내부청렴도와 이자보상배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7-3	내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1	종합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8-2	외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여성직원비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표 50] 가설채택 여부(조절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

구분	가설내용	채택여부
12-1	종합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 : 90% 신뢰구간, ** : 95% 신뢰구간, *** : 99% 신뢰구간에서 유의적

실증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과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부청렴도가 재무적 성과지표 중 활동성 지표인 총자산회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외적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하고 청렴한 관계형성이 기업의 경영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이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내부청렴도 수준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간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다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내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해당 기관의 청렴한 기업문화가 회사의 업무절차 투명성과 직원들 스스로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결국 업무효율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업고객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인 매출액세전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이윤추구의 극대화보다는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청렴도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청렴도와 기업의 경영성과간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또는 더 약하게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주된 목적이었다.

먼저 여성직원비율이 기업의 청렴도 수준과 재무적·비재무적 성과간의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를 보면 여성비율이 높아질수록 기관의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낮아진다는 연구(김대영 2018)가 있었고, 유재민(2012) 여성비율의 증가는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순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직원의 비율에 따라 그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외부청렴도와 매출액세전이익률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외부청렴도와 고객만족도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내부청렴도와 총자산회전율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종합청렴도와 고객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가설 5-2 에 의하면 여성직원비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청렴도가 매출액세전이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7-3에 의하면 여성직원비율이 증가할수록 내부청렴도가 총자산회전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8-1에 의하면 여성직원비율이 증가할수록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가설 8-3에 의하면 여성직원비율이 증가할수록 외부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의 평균 여성직원 비율이 17%에 불과하여 일반화하기 힘들지만 여성직원비율이 증가할수록 매출액세전이익률을 제외한 총자산회전율과 고객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이 부패에 대해 덜 관여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뇌물을 공유하는 오래된 남성 네트워크에 덜 관여한다고 주장된다(Azfar, Knack&Lee). Perters&Welch (1978)는 동일한 수준의 부패에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고 결론짓는다. 또한 Dollar, Fisman&Gatti(2001)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이처럼 비재무적 성과인 고객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외부고객과의 부패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낮고 이는 기업간 거래에 있어 이익을 확보하려는 외부고객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고객특성별기업유형의 조절효과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한 결과, 가설 12-1 에 의하면 고객유형이 B2C이면 B2B보다 종합청렴도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객특성별기업형이 B2C에 가까운 기업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쉽지않아 그 반향으로 낮은 고객만족도를 나타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청렴도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종합청렴도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여러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 강해지는지 또는 약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성직원비율과 고객특성별 기업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 뿐만 아니라 내부청렴도와 경영성과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여성직원비율과 고객특성별기업유형 또한 청렴도수준과 경영성과간 상관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간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높은 청렴수준이 반드시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렴도 수준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본연의 목적인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정책 및 해당지역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위하다보니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재무적인 성과 또한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내부 구성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외부청렴도보다는 내부청렴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외부청렴도 설문 0.735, 내부청렴도 설문은 0.265로 외부청렴도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국민의 기업, 공기업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외부 고객의 눈에서 기업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의해 조성된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외부에 전달되는 청렴의 가치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차기년도 청렴도 평가측정 시 가중치 산정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성도 추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대국민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걸음이 바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경영이며 내부 구성원들은 '청렴'의 가치가 체화되어 있어야 한다. 개인의 일탈이 조직 전체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공기업의 본연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공공기관은 윤리전담 부서를 구축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윤리적인 행태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공기업에 몸 담은 구성원이라면 확고한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투명한 업무수행, 청렴한 언행을 가지고 국민을 대할 때 본인 뿐만아니라 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이번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청렴도를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종합청렴도로 세분화하였고 기업의 경영성과 또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하여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측정대상을 시장형 공기업(16개)과 준시장형 공기업(20개)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외에도 준정부기관(96개) 및 기타 공공기관(281개)이 다수 존재하여 대표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변수별 결측자료가 존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수정된 R^2 의 값이 낮은편이다. 향후 청렴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축적된다면 데이터 신뢰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공기업의 공익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진정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지표만을 활용하였으나

향후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공익성 측정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선행연구에서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과 기업의 경영성과간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청렴도수준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당연히 ‘청렴’의 가치를 추구하여야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청렴의 가치가 확산되는데 동력을 얻으려면 높은 청렴도 수준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반석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egrity Level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 A Focus on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and Quasi-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Jeong, Jae-Yoon

Master of Public Enterprise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tegrity of public companies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ompanies. As Korea grows, the public's eye level and their requirements are increasing, and accordingly, the 'integrity' of public enterprises is being emphasized more. Nevertheless, it is a natural responsibility to regard the value of "integrity" as a public enterprise while many recent cases occur which greatly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public sector, such as speculation in real estates using internal information. As public enterprises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they should be a driving force that drives national economic growth through ethical and transparent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the profitability of companies to pursue profits must be guaranteed. Publicity and profitability are not alternative concepts, but they could be a hindrance to pursuing profitability. Therefore, by proving to pursue the publicity 'integrity' become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growth in the long term, it was intended to explain that it was a necessary choice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companies, not public compan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and 20 quasi-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among public enterprises prescribed by the law 'Public Institution Operation Act'. And the measurement period was for 10 years from 2011 to 2020.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 integrity index announced by the National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t was subdivided into comprehensive integrity, external integrity, and internal integrity.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which were profitability indicators, pre-tax returns, stability indicators, interest compensation ratios, and total asset turnover indicators. As a non-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 the results of the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were used. Sales, average annual salary, and type of public enterprise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As an adjustment variable, the correlation was checked under what conditions the correlation changed by setting the female employee ratio and the company type by customer characteristics (B2C/B2B).

First, it was not confirmed that the level of integrity of public companies necessarily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fact that public corporations are in a special position that cannot respond quickly to the market and pursue efficiency onl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internal integr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with customer satisfaction. It is estimated that the 'integrity' mindset and transparent business processing of internal members ultimatel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external customer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tegrity and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female employees, the stronger the

negative effect or the weak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rehensive integrity, internal integr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is can be inferred that external customers who aim to maximize their profit will demand prompt and flexible work, and due to the nature of female employees less involved in corruption, conflicts occur in this process, which negatively affected customer satisfaction.

Fin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not obtained on the effect of corporate types by customer characteristic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tegrity and corporate management performance. The closer it is to a B2C company, the more it is to engage in sales activities with an unspecified number of customers, which is judged to result in a positive effect by generously investing in the company'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but there is no particular correlation.

In conclusion, although it failed to produce a result that guarantee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a company with a high level of integrity, I thin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t least it proved the level of integrity is not a un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s management performance.

Keyword : integrity, ethical management, performance, public enterprises

참 고 문 헌

- 강철희, 정승화(2007), “기업사회공헌과 기업의 재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3 (4) 29-56.
- 강철희, 김창우, 최정은(2016), “기업사회공헌과 재무성과의 쌍방향적 관계 및 자기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국내 10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05-232.
- 공병호, 최승노(1996), 『기업윤리강령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경제연구원
- 김수연, 송경환, 이호영(2017), “공기업 CEO특성이 사회적책임활동에 미치는 영향 : 내부승진 여부 및 전문성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2 (2), 209-243
- 김성수(2011), 『21세기 청렴형 윤리경영론의 콘서트』, 서울 : 탐북스
- 김용래, 전왕국(2012), “공기업의 경영성과와 청렴도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2 (4) 25-43
- 김인동, 최종인(2011), “공기업의 윤리경영 실천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4 (1), 49-73.
- 김지원(2007), “윤리경영·책임경영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택(2010), 『공기업 윤리경영』, 서울 : 한국학술정보
- 박석희, 이선영(2016),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실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 (4), 1-26.
- 박재린, 이종범, 윤대혁(2003), 『기업윤리론 : 21세기윤리경영의 시대』, 서울 : 무역경영사.
- 박헌준, 이종건(2002), “기부와 환경보호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인사조직연구, 10 (1), 95-133.
- 손승희(2009), “기업의 윤리경영이 고객관점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질서경제저널, 12 (1), 19-40.
- 신형덕(2016), 『경영학 입문을 위한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서울 : 시그마프레스
- 손수훈(2006),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상호 관련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형모, 윤태화(201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33 (1), 25-52.
- 오근혜(2013),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이 기업가치 및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오근혜, 윤희구, 강승모(2012),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영이 기업가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금융지식연구, 10 (3), 3-27.
- 이강호(2012),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라시아연구, 9 (4), 121-23.
- 이건희(2003), “교보생명의 윤리경영”, 기업윤리연구, 6, 58-98.
- 이호갑, 박성환, 여은미(2011), “윤리경영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국제회계연구”, 38, 267~292
- 이종영(2005), 『기업윤리: 윤리경영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삼영사
- 임태순(2012), 『기업윤리 Business Etics』, 서울 : 한국학술정보
- 여영현(2006),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53-173.
- 유성은(2007), “기업의 윤리수준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은철, 유희림(2013), “공공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4-58.
- 유은철, 유희림(2014),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조직관리 특성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분석”, 한국행정연구, 23 (3), 55-79.
- 이정주(2013), “청렴시스템과 조직청렴도 및 조직몰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 (1), 304-323.
- 이정주(2016), “선순환적 부패통제메커니즘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 (1), 99~122.
- 최운열, 홍창선, 이호선(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부금지출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8 (2), 407-432.
- 변상민, 김재환, 남인우(2013), “기업별 마케팅 활동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관한 연구” 1289-1321
- 송갈마로 (2015)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여성임직원 비율과 기관 청렴도 간 관계에 대한 연구” 23-28

- Kaplan, R. S., Norton, D. P.(1992), “The balanced score: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1:10.
-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60-469.
- Aupperle, K. E., Carroll, A. B., & Hatfield, J. D.(1985),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sponsibility and profit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8 (2), 446-463.
- Bartlett, A., & Preston, D.(2000), “Can ethical behaviour really exist in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3 (2), 199-209.
- Berman, S. L., Wicks, A. C., Kotha, S., & Jones, T. M.(1999), “Does stakeholder orientation ma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 management models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5), 488-506.
- Ullmann, A. A.(1985), “Data in search of a theory,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performance, social disclosure and economic performance of U.S. Firm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3), 540-557.
- Velasquez, Manuel G.(2001), 『Business Ethics』, Prentice Hall
- Waddock, S. A., & Graves, S. B.(1997), “The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financial performance lin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4), 303-319.